

발간번호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2021-03

2021년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성과보고서

함께 어깨 걸고가는 길



경다 ①어깨를 나란히 대고 그 위에 서로 손을 올려놓다. ②행동을 서로 같이 함

본 책자는 서울시복지재단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연구자문

임정현 (제도과사람 연구소, 연구위원)

연구집필

온지혜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옹호팀장)

이정혜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연계팀 사회복지사)

발간사

장애인이 원하는 삶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복지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복지관은 2017년 4월 개관 이후에 관악구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의 관계망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확대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서울복지재단 지원으로 시작한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은 3년 지원이 마무리되고 2021년부터 자부담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고, 2019년 서울공동모금회 지원 사업으로 출발한 스몰스파크는 2020년부터 2년간 재단지원을 통해 내실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통합사업 예산지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 지난 경험을 통해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복지관은 기존의 정량적 성과 측정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자분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사업의 성과를 들여다보고 향후 과제와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FGI를 활용한 질적연구를 병행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은 장애를 의식하지 않고 이웃, 사람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였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고, 느슨했던 관계가 단단하게 변화되는 경험을 통해 관계의 방향과 밀도가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자연적 원조망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사회의 연결을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받는 삶에서 지역사회 삶으로 장애인 삶의 변화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좋은 계기가 되어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단지 참여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참여가 관계로 이어지고 의미있는 삶, 기여하는 삶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도 관악구 지역사회 안에서 역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지역통합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무엇보다 감사드리고, 지역에 작은 씨앗을 뿌리고 관계라는 열매가 맺히도록 땀방울 흘린 온지혜, 이정혜 사회복지사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 질적연구에 익숙하지 않은 실무자들에게 생각의 불씨를 당겨준 「제도와사람 연구소」 임정현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장애인 지역통합을 고민하는 많은 기관에 좋은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지역통합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충알을 장전해 준 서울시복지재단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2021년 12월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황성혜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사업추진 배경 ————— 2

제2절 세부사업 소개 ————— 4

1.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4

2. 스몰스파크 ————— 7



제2장 지역통합사업 성과

제1절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14

- 1. 연구 방법 ————— 14
- 2. 양적연구 결과 ————— 17
- 3. 질적연구 결과 ————— 24
- 4. 사업 성과 ————— 37
- 5. 향후 계획 ————— 39

제2절 스몰스파크 ————— 41

- 1. 연구 방법 ————— 41
- 2. 양적연구 결과 ————— 44
- 3. 질적연구 결과 ————— 51
- 4. 사업 성과 ————— 57
- 5. 향후 계획 ————— 59

제3장 우리들의 이야기

제1절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64

제2절 스몰스파크 ————— 72

참고문헌 ————— 93

부록 ————— 94

함께
어깨걸고
가는 길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사업추진 배경

제2절 세부사업 소개

1.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2. 스몰스파크
-

제1절 사업추진배경

장애인 지역통합이란 장애인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가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인격적 개인으로서 당당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 지역통합의 개념에는 장애인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사회자원을 똑같이 이용하는 것,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사회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 장애가 없는 일반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 등이 포함된다.²⁾ 장애인 지역통합은 장애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개념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최근 장애인 지원 동향의 흐름이 사회적 관계망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삶을 위한 지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장애를 개인이 아닌 사회 환경의 문제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로써 사회통합 지원체계를 강조하는 장애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수동적 서비스를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장애인을 수혜자로 인식해왔다. 이러한 체계 속에서 지역 내의 자연스러운 삶과 복지 서비스 공간이 분리되고, 개별화된 욕구 충족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관악구는 주민의 지역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 2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초창기 주민조직이라 할 수 있는 관악주민연대 활동, 365 자원봉사 도시로서 2019년도 기준 21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과 봉사단의 활동, 고시촌을 주 활동 무대로 삼은 다양한 청년 단체 등 많은 주민들과 활동들이 서로 얽혀 연대를 형성하고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특징을 살려 주민활동지원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에는 관악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약 20여 개의 주민활동에 지원금을 전달하였으며 각 동별로 자체적인 이웃만들기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1) 박승희, 「장애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환 지원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2010

2) 이익섭, 「장애인 통합지수의 개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8

그러나 양적, 질적으로 많은 주민활동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장애인이 함께하는 주민활동은 미비하고, 주로 장애부모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서 맺어진 장기적인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맡아 수행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참여와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관악구 최초, 유일의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장애인 지역통합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세부사업으로는 2018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관계를 지속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과 2019년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주도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스몰스파크 사업’이 있다.

장애인 지역통합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며 건강하고 의미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장애인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 활동이 확대되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가지게되어 지역사회가 장애인 통합환경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제2절 세부사업 소개

1.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 1) 목적** 시민옹호활동가를 육성하여 자주적 권리보장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게 시민옹호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일상적인 삶을 향유하는 관악구를 실현한다.
- 2) 사업기간** 2018. 03. - 2021. 12
- 3) 사업대상**
- **장애인** :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등록장애인
자기옹호에 어려움이 있어 외부의 옹호 지원이 필요한 자,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없는 자, 혼자 외부 활동하기 어려워 지역사회 참여가 낮은 자
 - **지역주민** :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지역주민
장애인과 장애인의 인권에 관심이 많은 자, 옹호인으로서의 역량강화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 장애인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가능한 자



시민옹호활동가란?

동네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이웃이 되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정서적 지지가 필요할 때 일상 속에서 지원하고 옹호하는 지역주민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p>장애인 자기옹호 역량 강화 교육</p>	<p>참여 : 장애인 방법 : 기초교육, 심화교육 등 내용 : 전문가사를 통한 인권의 이해, 자기결정권 등 실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권리들</p>
<p>시민옹호 활동가 역량강화교육</p>	<p>참여 : 지역주민 방법 : 기초교육, 심화교육 등 내용 : ①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 안내 및 자기주도성 강조 ② 시민옹호활동가로서 개인, 단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조 - 개인 : 성취감 향상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편견 해소 - 단체 : 긍정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장애인)과의 관계 형성 - 지역사회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p>
<p>짝공맺기</p>	<p>참여 :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방법 : 각 참여자의 성별, 연령, 거주지, 성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시민옹호활동가 1:1 매칭</p>
<p>시민옹호활동</p>	<p>참여 :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방법 : ① 전화상담, 가정방문, 지역사회 탐방 등을 통해 말벗, 문화활동 참여, 욕구 파악, 지지적 관계 형성 ② 권익침해가 우려되는 상황 파악, 일상생활 속 권익침해 사항 발견 - 일상적 권익옹호 : 일상 속 권익 침해 발견 시 문제제기, 자기결정 독려, 대변 활동, 환경 개선 등 - 독립적 권익옹호 : 권익침해 발견 시 이슈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전문적 권익옹호 서비스 연계 등 ③ 지역사회 환경 개선 : 지역사회환경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친화상점 만들기 및 이용 (경사로 설치,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발달장애인용 메뉴 만들기 등)</p>
<p>정기간담회</p>	<p>참여 : 시민옹호활동가 방법 : 월 1회 정기적으로 온,오프라인 실시 내용 : 시민옹호활동 내용 공유, 장애인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정보 제공, 슈퍼비전 제공, 시민옹호활동 방향성 논의, 서비스 연계 논의</p>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옹호네트워크	<p>참여 : 시민옹호활동가, 유관기관</p> <p>방법 : 시민옹호활동가, 동주민센터, 자립생활센터, 법률홍닥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옹호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권익침해 사항에 대한 논의 및 협력을 통한 개선</p>

5) 연도별 추진 내용

구분	2018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지원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자체사업
목적	지역사회에 시민옹호 알리기	지역사회에서 직접 활동하기	코로나19 상황 속에 서도 지역사회에서 활동 유지하기	시민옹호의 의미, 지속가능성 찾기
핵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홍보 - 참여자 모집 - 시민옹호 활동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매칭 및 관계형성 - 지역사회 환경조사 - 옹호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활동 지원 - 참여자간 유대감 증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자기옹호 역량 강화 - 양적, 질적연구를 통한 사업 성과 측정

6) 연도별 참여자 현황

연도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	참여 현황
2018	18명	25명	장애인-시민옹호활동가 매칭 : 22회 총 264번의 만남
2019	31명	38명	장애인-시민옹호활동가 매칭 : 21회 총 904번의 만남
2020	24명	24명	장애인-시민옹호활동가 매칭 : 24회 총 317번의 만남
2021	18명	20명	장애인-시민옹호활동가 매칭 : 16회 총 387번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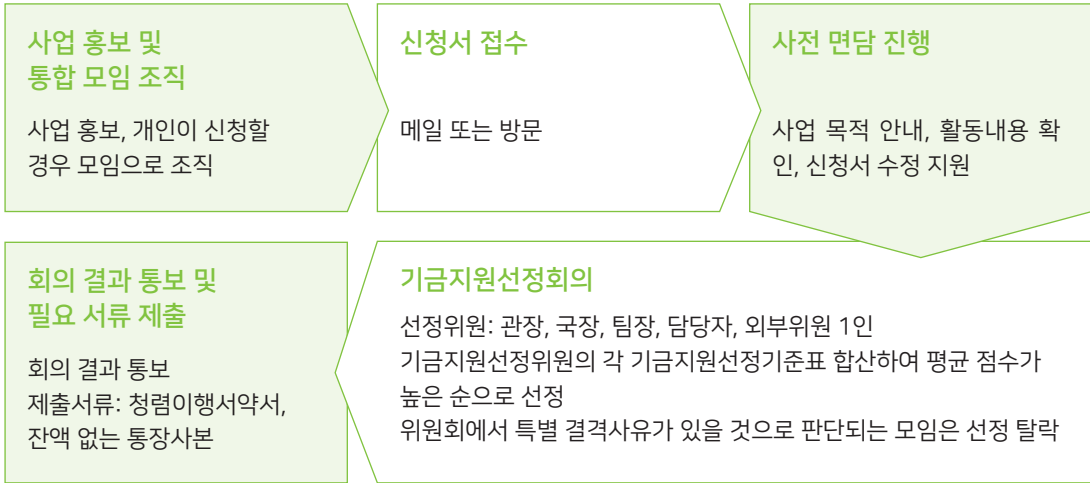
2. 스몰스파크

- 1) 목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의 이웃으로써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 통합 환경 조성
- 2) 사업기간** 2019.03. ~ 2021.12
- 3) 사업대상** 장애인 ·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활동과 모임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장애인 · 비장애인 통합 개인 및 모임

• 기금 지원 선정 기준

1. 지원필요성	-장애인주민을 포함한 모임의 모든 구성원의 역할 명확성 -기금지원을 통해 구성원 또는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는 정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성원 비율 적절성
2. 모임의 민주성	-장애인 구성원 역할의 자기주도성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이 높은 정도
3. 활동지속성	-민주적 의사결정 방안 -추후 활동 지속성 -온라인 활동 가능성
4. 공익성	-활동이 장애인의 지역 통합 환경 조성에 기여 정도 -활동의 지역 내 확산 또는 공유가 가능 정도
5. 예산현실성	-신청 활동에 대한 경험, 책임성 등 사업 수행 역량 -예산 배분의 적절성 -예산사용의 계획의 구체성

• 선정과정



4)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통합모임 역량강화	<p>대상 : 통합 모임</p> <p>방법 : - 사전교육 각 모임 별 특성, 장애인 구성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전교육 실시 사업 소개, 공동체 인권 교육, 모임 내 역할 분배, 지원금 관리 안내</p> <p>- 통합 역량강화 교육 모든 소모임 대상으로 공통의 역량강화 교육 진행을 통해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 및 모임 간 관계 형성</p> <p>- 간담회 통합 모임 활동 소감 공유 및 추후 활동 계획 확인 모임 구성원이 사업의 목적을 상기하고 동등한 관계에서 모임을 함께하고 있는지 모임 역동 점검</p>
통합모임 활동 지원	<p>대상 : 통합 모임</p> <p>방법 : - 활동비 지원 모임 별 활동지원금 50만원 지원 모임 회장 명의의 신규 계좌로 선 지원 제출서류: 청렴이행서약서, 신규 통장사본</p> <p>- 모니터링 모임 별 모니터링 실시하여 활동 시 필요 지원요소 확인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여부 점검(장소, 환기, 마스크 착용 등)</p>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통합모임 공유활동	<p>대상 : 통합 모임</p> <p>방법 : - 활동공유회</p> <p>연말 모든 소모임 참여하여 작품 전시회, 식전행사 등 소모임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구성</p> <p>모임 별 활동 내용 발표 및 참여자 소감 공유</p> <p>참여 기념품 및 활동수기집 전달</p> <p>- 활동수기집 · 성과보고서 제작 및 배포</p> <p>참여자 수기 및 사업성과(FGI 내용)가 담긴 사업성과보고서 제작</p> <p>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배포</p>

5) 연도별 추진 내용

구분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지원	서울공동모금회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목적	통합모임의 가능성 확인	참여자 대상 사업의 목 적과 의미 전달	사업의 성과와 의미 확인을 통한 향후계획 수립
핵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모임 선정기준 마련 -월 단위 활동비 환급 지원 -활동공유회 및 활동수기집 제작 -지원 통합 모임 총 7개 최대 80만원 지원 총 예산 8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임 별 사전교육 -통합 역량강화교육 -활동비 선지원으로 변경 -활동공유회 및 활동수기집 제작 -지원 통합 모임 총 6개 최대 50만원 지원 총 예산 6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임 별 맞춤형 사전교육 -통합 역량강화교육 지속 -모임 별 관찰 및 활동일지 작성 확대 -전문가 자문 및 FGI를 통한 질적평가 -활동공유회 -지역통합사업 성과보고서 제작 -지원 통합 모임 총 4개 최대 50만원 지원 총 예산 600만원

6) 연도별 참여 모임 명단

참여 연도	모임명	구성원 특징	활동내용
2019	턴투 에이블	장애인 1명 비장애인 3명	서울대 장애인권동아리 턴투에이블과 본관 통합 편의시설 모니터링단 단원 연계 월 1회 지역 내 배리어프리 상점 조사 및 공유 활동 진행
	여정희	장애인 1명 비장애인 4명	60~70대 여성 친목 모임 구청 노래교실 참여 주민들 월 1회 노래활동 및 1박 2일 여행
	우리는 영원한 친구	장애인 1명 비장애인 3명	중학교 같은 반 친구 모임 주 1회 수영 강습 수강
	셋별	장애인 1명 비장애인 5명	40~50대 여성 모임 삼성동 셋별작은도서관 독서동아리 월 1회 문화 체험 활동, 독서토론 진행
	즐거운 바둑 모임	장애인 6명 비장애인 1명	60~70대 남성 모임 본관 이용자 및 지인으로 구성 주 1회 바둑 강습 및 대국 활동
	드림 코리아	장애인 3명 비장애인 2명	20~40대 남성 모임 월 1회 스터디 모임 진행
	모두가 다른 우리	장애인 2명 비장애인 5명	독서동아리 활동 엄마와 자녀 모임 장애 관련 동화책을 읽고 놀이활동 진행
2020	모두가 다른 우리	비장애인 6명	2019년 참여자 중 일부가 다시 모임 관악영어마을캠프 안디아모 다국어도서관을 거점으로 주 1회 도서관 이용 아동 대상 장애 이해 내용의 독후활동 진행 활동 내용 관련 유튜브 채널 운영 등 활동 확대
	함께 걷는 사람들	장애인 2명 비장애인 2명	50~60대 이웃 모임 주 1회 서울 내 둘레길 걷기 모임 활동비를 통해 등산 외 문화 활동 예정으로 활동의 확대

참여 연도	모임명	구성원 특징	활동내용
2020	이루는 모임	장애인 1명 비장애인 12명	초6~중2의 자녀와 30~40대의 모임 주 1회 독서토론 모임 본 사업을 신청하며 독서 토론주제에 인권, 장애 분야 추가
	진달래 모임	장애인 2명 비장애인 2명	60~70대 여성 모임 월 1회 이웃 간의 친목 모임
	이음	장애인 2명 비장애인 3명	응심이와 짝꿍 모임 월 1회 친목 모임
	너나들이	장애인 2명 비장애인 5명	5~70대 여성 이웃 모임 월 1회 뜨개질 모임
2021	모세의 기적	장애인 3명 비장애인 2명	60~70대 이웃 모임 봉천우성아파트 거주자의 친목 도모 월 1~2회 나들이 활동
	뜨.사.모	장애인 4명 비장애인 1명	40~60대 여자 모임 본관에서 모집한 뜨개질 신규 모임 월 2회 본관에서 뜨개질 활동 코로나19로 온라인 활동 진행
	꿈꾸는 낚시 모임	장애인 2명 비장애인 2명	4~50대 남성 모임 같은 교회 신도 낚시 모임 총 3회 1박 2일 낚시 활동 다녀옴
	문학 마을	장애인 4명 비장애인 2명	50~60대 여성 모임 기존 본관에서 캘리그래피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이용인과 캘리그래피에 관심 있는 비장애인이 모인 신규 모임 월 1회 오프라인 활동 및 온라인 활동 온라인 활동 매우 활성화

함께
어깨걸고
가는 길



제2장

지역통합사업 성과

제1절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1. 연구 방법
2. 양적연구 결과
3. 질적연구 결과
4. 사업 성과
5. 향후 계획

제2절 스몰스파크

1. 연구 방법
 2. 양적연구 결과
 3. 질적연구 결과
 4. 사업 성과
 5. 향후 계획
-

제1절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1. 연구방법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양적, 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양적연구 시에는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질적연구 시에는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1) 양적연구 방법

양적연구는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변화를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 기준으로 장애인 15명, 시민옹호활동가 20명에게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경우 심한 발달장애로 인해 설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3명을 제외한 15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은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사업 참여 전, 후를 비교하는 구조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점수는 총 4점 만점에서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이 매우 그러할수록 4점, 그렇지 않을수록 1점을 주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제작한 지역통합사업 성과측정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V18.0 통계패키지를 통해 비모수 통계분석(윌콕슨 부호순위검정)을 활용하였다.

<표1-1> 설문 주요 내용

참여자구분	내용
장애인	[서울시복지재단 성과측정 설문조사] - 자기효능감 - 지역사회 내 관계 태도 - 사회생활(사회적 자본)

참여자구분	내용
시민옹호활동가	[서울시복지재단 성과측정 설문조사] -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 장애인 인권 및 포용

2) 질적연구 방법

질적연구는 참여자들의 의미있는 경험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FGI에는 사업 참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애인 8명, 시민옹호활동가 8명 총 16명이 참여하였다. FGI는 참여자별로 구분하여 2시간 이내로 회당 4명, 총 4회 진행하였다. 질문은 구조화되지 않은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고 전사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귀납적 주제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표1-2> FGI 주요 질문

참여자구분	질문 내용
장애인	- 사업 참여 계기 - 활동, 관계,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경험 - 사업 참여 후 일상 변화 - 시민옹호활동가를 통해 도움받은 것 - 힘들었던 점, 필요한 지원
시민옹호활동가	- 사업 참여 계기 - 활동, 관계, 지역사회통합에 대한 경험 - 활동 원동력 - 사업 참여 후 일상 변화 - 힘들었던 점, 필요한 지원

<표1-3> FGI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매칭기간
집단1 (장애인)	1	장애인1	여	77	지체	심함	1년 11개월
	2	장애인2	여	59	간질, 지체	심하지않음	1년 8개월
	3	장애인3	여	47	청각	심함	2년 6개월
	4	장애인4	여	62	시각	심하지않음	1년
집단2 (장애인)	5	장애인5	여	41	지적	심함	2년 4개월
	6	장애인6	여	47	지적	심함	2년 2개월
	7	장애인7	여	56	지적	심함	2년 5개월
	8	장애인8	여	52	지적	심함	1년 5개월
집단3 (비장애인)	9	시민옹호 활동가1	여	77	-	-	1년 11개월
	10	시민옹호 활동가2	여	68	-	-	1년 8개월
	11	시민옹호 활동가3	여	71	-	-	2년 6개월
	12	시민옹호 활동가4	여	68	-	-	1년
집단4 (비장애인)	13	시민옹호 활동가5	여	51	-	-	3년
	14	시민옹호 활동가6	여	55	-	-	2년 2개월
	15	시민옹호 활동가7	여	76	-	-	3년
	16	시민옹호 활동가8	여	76	-	-	2년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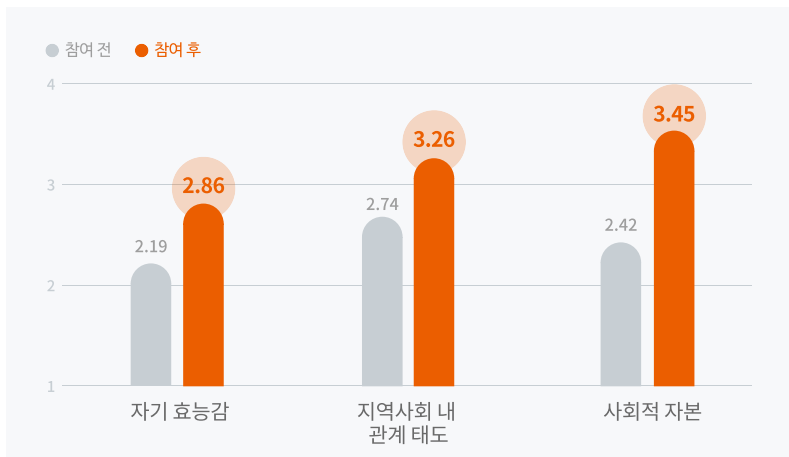
2. 양적연구 결과

1) 장애인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 지역사회 내 관계 태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업 참여 전, 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자기 효능감은 0.667점, 지역사회 내 관계 태도는 0.515점, 사회적 자본은 1.037점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이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이웃주민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자신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원망이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기 효능감, 지역사회 내 관계 태도에 비해 사회적 자본의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의 1:1 매칭을 통한 일상적 관계 형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표1-4>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 지역사회 내 관계, 사회적 자본 변화

성과개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Z	P
자기 효능감	참여 전	15	2.19	0.287	0.667	2.271	0.023*
	참여 후	15	2.86	0.323			

성과개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Z	P
지역사회 내 관계 태도	참여 전	15	2.74	0.380	0.515	2.214	0.027*
	참여 후	15	3.26	0.310			
사회적 자본	참여 전	15	2.42	0.394	1.037	2.214	0.027*
	참여 후	15	3.45	0.327			

•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영역의 사전, 사후 평균점수가 다른 영역의 점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사업 참여 전 상황이 장애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거나 늘 혼자 외롭게 있어 대화상대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다소 낮은 상황이었다.

4번째 문항인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에서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는데,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지역활동을 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5> 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변화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1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	2.50	1.67	-0.833
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50	3.00	0.500
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2.33	3.00	0.667
4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한다.	2.33	3.33	1.000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2.17	2.50	0.333
6	나는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다.	2.17	2.83	0.667

※ 1번 역문항

- **지역사회 내 관계 태도**

지역사회 내 관계 태도 변화폭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가장 낮게 나타난 것에 비해 사전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4,5번째 문항인 외출에 대해서는 직장생활을 하는 참여자의 높은 점수가 반영되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1,2,3번째 문항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자신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의 사전점수가 낮은 데 비해 가장 큰 변화폭을 보이고 있어 시민옹호활동가와의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과 친해지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역사회 내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6>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관계 태도 변화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1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2.71	3.64	0.929
2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2.57	3.21	0.643
3	나는 새로운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2.21	2.79	0.571
4	나는 자주 외출한다.	3.07	3.29	0.214
5	나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상관없이 외출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3.14	3.36	0.214

-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의 경우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7번째 문항인 도움을 요청할 사람, 동네주민과 함께 활동 참여, 새로운 경험에 대한 변화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시민옹호활동가와의 주된 활동이 그동안 장애로 인해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 동행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일상생활을 함께 하며 장애인의 일상적 권익옹호를 지원하는 시민옹호활동이 장애인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장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에 매우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표 1-7> 장애인의 사회생활(사회적 자본) 변화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1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2.43	3.86	1.429
2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2.86	3.57	0.714
3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주민센터, 복지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다.	2.57	3.57	1.000
4	집근처 내가 원하는 곳(상점, 음식점, 관공서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93	3.43	0.500
5	나는 동네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93	3.64	1.714
6	나는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2.21	2.86	0.643
7	나는 동네주민과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한다.	2.00	3.21	1.214

2) 시민옹호활동가

시민옹호활동가의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장애인 인권 및 포용에 대한 사업 참여 전, 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은 0.888점, 장애인 인권 및 포용은 0.392점이 상승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이웃과 직접 만나며 장애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장애인 인권 및 포용의 경우 3.30점이라는 높은 사전 평균점수를 나타냈는데 장애인을 포용하는 태도를 가진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표1-8> 시민옹호활동가의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장애인 인권 및 포용 변화

성과개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Z	P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참여 전	20	2.17	0.287	0.888	3.625	0.000*
	참여 후	20	3.06	0.288			
장애인 인권 및 포용	참여 전	20	3.30	0.337	0.392	3.532	0.000*
	참여 후	20	3.69	0.205			

•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시민옹호활동가는 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5번째 문항에서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는데 장애인과의 1:1 매칭을 통해 장애인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나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장애인 이웃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1-9> 시민옹호활동가의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변화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1	장애인은 외부와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3.18	1.76	-1.41
2	장애인은 대체로 비장애인보다 다가가기 어렵다.	3.12	1.82	-1.29
3	장애인과는 주의해서 말해야 한다.	3.65	2.41	-1.24
4	대부분의 장애인은 걱정거리가 많다.	2.94	2.06	-0.88
5	장애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늘 도움을 주어야 한다.	2.94	1.94	-1.00
6	장애인은 외부와 단절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다.	2.41	2.94	0.53
7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2.24	2.88	0.65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8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일반적인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	2.06	2.59	0.53
9	장애인의 능력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3.35	2.65	-0.71
10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자기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	2.35	3.00	0.65

※ 1,2,3,4,5번 역문항

• 장애인 인권 및 포용

6번째 문항인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대해 가장 큰 변화폭을 보였는데 이는 시민옹호활동가가 직접 지역사회로 나가 지역사회 환경조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재를 직접 경험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반면 5번째 문항의 점수 변화폭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장애인을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10> 장애인 인권 및 포용 변화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1	장애인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59	3.82	0.235
2	장애인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자격이 있다.	3.59	3.82	0.235
3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18	3.76	0.588
4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3.59	3.82	0.235
5	모든 장애인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	3.53	3.65	0.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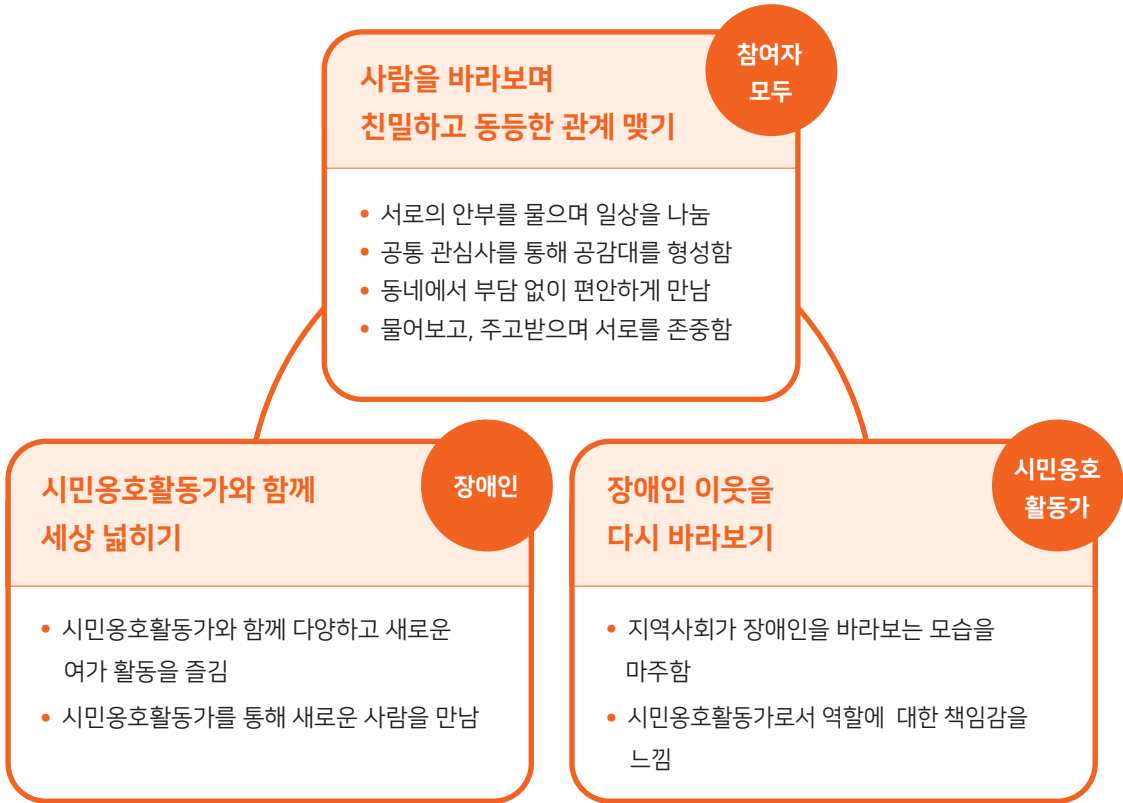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6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상점, 식당, 편의시설 등)이 부족 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3.06	3.76	0.706
7	장애인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3.41	3.76	0.353
8	장애인이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3.18	3.65	0.471
9	장애인이 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2.59	3.18	0.588

3) 소결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 지역사회 내 관계 태도, 사회적 자본은 사업 참여 후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거나 늘 혼자 외롭게 있어 대화상대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지역주민인 시민옹호활동가를 만나 친밀하게 사귀며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자기 효능감과 지역사회 내 관계 태도의 변화를 통해 시민옹호활동가를 만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자신과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회적 자본의 가장 큰 변화폭을 통해 시민옹호활동가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 관계망이 확장된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옹호활동가의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장애인 인권 및 포용은 사업 참여 후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지역주민이 장애인 이웃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정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역사회 환경개선의 필요성 인식,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이웃을 바라보는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시민옹호활동가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을 포용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3. 질적 연구 결과



1) 사람을 바라보며 친밀하고 동등한 관계 맺기 (참여자 모두의 경험)

-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일상을 나눔**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는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일상을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졌다. 초반에는 시민옹호활동가가 먼저 장애인의 안부를 물으며 소통을 이어갔다.

장애인 또한 시민옹호활동가의 연락을 받는 것이 당연했다. 관계가 계속 되면서 시민옹호활동가는 더 많이 들어주고 장애인은 더 많이 말하고 먼저 연락하는 상황으로 변화하였다.

"못 보면 전화하고 언니랑 보내는 게 일상인 것 같아요. 끈끈한 유대관계가 좋아요. (중략) 일상을 나누는 게 좋아요." **장애인4**

"자주 가지는 못해서 내 건강을 챙겨주고 자주 연락해요. 마음은 건강하니까 항상 저를 챙기더라고요. 크게 도와주는 건 없고 서로 말벗이고 전화하면 반갑고 비오면 나가지 말라고 하고."

시민옹호활동가1

"어떻게 지냈냐, 잘 지내냐, 잠은 잘 잤냐 그래요. 카톡으로 주고 받고 해요. 문자도 주고 받고 전화도 하고. 하루에 세번 연락해요. 카톡에 예쁜 이모티콘 보내요." **장애인5**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는 서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일이 하루 일과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고 집에만 있던 장애인, 사회적 관계망이 상대적으로 적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누군가의 연락이 기다려지고 또는 연락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였다.

- **공통 관심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함**

장애인은 비장애인인 시민옹호활동가가 자신의 장애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였고, 시민옹호활동가 또한 장애인 이웃과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해야 할지 어려워했다. 혹시나 서로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으로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였다.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는 그날의 집밥 메뉴 고민하기,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 등 공통 관심사를 나누거나 같은 처지에 대해 공감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갔다.

"무슨 찌개 해먹어요, 김치찌개 할 때 뭐가 괜찮더라 된장찌개 할 때 뭘 하면 맛있더라 하면서 알려줘요. 나는 그런 거 안 해봤는데 해먹어 보라고 했어요." **장애인8**

"그 분도 혼자살고 나도 아들하고 둘이 살고 하다 보니 음식 좀 하면 오라고 해서 같이 먹고 짬뽕도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같이 먹고. 둘이 할 얘기도 많고. (중략) 둘 다 식구들이 없다보니깐 더 부담 없이 자주 만나고 안아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시민옹호활동가4**

" '엄마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이렇게 저한테 와 닿았어요. 아들도 다 커갖고 이렇다면서.
(중략) 아들 얘기할 때 그 애절함 있잖아요.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갖고 있는 그런 애절함도 있
고." **시민옹호활동가5**

나와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
이웃, 비장애인 이웃의 관계가 아닌 그냥 '이웃'으로서 교류하고 신뢰를 쌓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 동네에서 부담 없이 편안하게 만남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의 활동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만나
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편안하게 서로의 집을 오가거나 우연히 동네에서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도 나누었다. 또, 시간이 맞으면 가까운 공원 산책도 가면서 그들이 사는 곳에서 일상을 함께
나눴다.

"언제는 길가다가 2번을 만났어요. 그런 게 좋아요." **시민옹호활동가1**

"동네에서도 같이 자주 만나요. 둘이 같이 동네에 사니까, 걸어서 7-8분 거리되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좋더라고요." **시민옹호활동가4**

"집이 가까우니까 왔다갔다해. 집에 와서 자기가 쓴 일기도 읽어주고 그랬어요. 같이 밥도 먹으
러 가고. 다 좋든데요. 그냥 다 좋아요. 동네마트에서 딱 만나서 도너스도 같이 먹고." **장애인7**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는 자신들의 동네에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소소하고 재미있는 일
상을 함께 나누고 이를 즐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가 더욱 친
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 마음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존중함

시민옹호활동가가 장애인과 친해지기 위해 주로 먼저 연락하고 선물도 주는 상황이 초반에 많
이 발생하였다. 시민옹호활동가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자 장애인과 시민옹
호활동가는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장애인도 누군가에게 주는 경험을 통해 기쁨과 뿌듯함을 느끼고, 시민옹호활동가도 자신이 주

는 역할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민옹호활동가는 주는 사람, 장애인은 받는 사람이라는 고정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장애인-비장애인 간 동등한 관계를 경험하였다.

"가방을 하나 제가 줬어요. 너무 좋다고 전화로 얘기하고, 나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하나 주면 엄청 소중히 아끼고 좋아해요. 팔찌도 내가 하나 줬더니 그것도 좋다고 맨날 차고 다니고. 그랬더니 어느 날은 언니랑 같이 나와서 맨날 받기만 했다고 햄하고 옥수수 준비했다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먹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주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민옹호활동가6**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주고받아요. 먹을 거 많이 나눠 먹고, 큰 선물은 아니더라도. 짝꿍이 친언니 같다고 해요. 서로 예의를 잘 지켜서인지. 저도 사심 없이 이익을 바라는 게 아니니까 어려움이 없고 그래요. 서로 많이 요구하지 않고. 서로 노력해야 돼요." **시민옹호활동가4**

FGI 진행 시 발달장애인에게 시민옹호활동가는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사진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민옹호활동가를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제시된 여러 사진들 중 아래와 같이 선택하였다.



“저랑 언니와 사이 같아요.” **장애인5**



“초는 따뜻한 느낌이 드니까 따뜻한 시민옹호활동가예요” **장애인8**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는 위 사진처럼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함께 동행하며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는 사업 참여를 통해 장애를 넘어 진정한 이웃이 됨을 경험하였다.

2)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세상 넓히기(장애인의 경험)

-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다양하고 새로운 여가활동을 즐김

장애로 인해 혼자 외부활동이 어렵거나 혼자 살아서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장애인은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하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혼자 갔던 공원 산책, 노래교실이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하니 더욱 즐거워지는 경험을 하였다.

또,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처음으로 영화 관람도 하면서 새로운 여가활동을 즐기기도 하였다. 거리가 멀어서 가기 망설였던 아쿠아리움도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가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도 하였다.

"난 영화 보러 한 번도 안 갔는데 그 언니랑 처음 갔어. 영화 보러 많이 갔어. 영화보고 밥 먹고 좋았지. 식당에서 밥 먹고 사진 찍고." 장애인7

"같이 잠실 가서 물고기 보러가거나 영화를 보러가거나 했던 거요. 다닌 적이 없었는데 거기(아쿠아리움) 생기고 나서 처음 가보니까 좋았어요." 장애인8

"같이 노래교실도 가고, 보라매공원도 한 번씩 가고 그랬어요, 손잡고 가서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노래 불렀던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 같이 여행을 갔었어요. 사진도 같이 찍고, 그때 만든 인형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추억이라 생각하고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어요." 장애인2

장애인은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동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를 알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지역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시민옹호활동가를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남

시민옹호활동가와의 만남을 통해 이웃과 긍정적인 경험을 한 장애인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시민옹호활동가의 가족, 또 다른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친구를 소개받아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또,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주민들을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언니 통해서 저도 친구를 새로 만나게 되었어요." 장애인4

"언니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통화했어요. 이야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영상통화했어요. 언니가 영상통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야기도 하고." 장애인5

많은 지역주민들과의 접촉은 지역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인식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 장애인이 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3) 장애인 이웃을 다시 바라보기(시민옹호활동가의 경험)

-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모습을 마주함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 이웃과 동네에서 함께 다니며 장애인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알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장애인 이웃이 지역사회에서 받는 부당한 대우에 함께 화내주고 지역주민의 장애인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그 양반을 접하는 사람들이 보면 애고 어른이고 다 반말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도 기분이 나빠요. 옆에서 보면 나는 속상한 거지. 은근히 짜증나고. 내 아는 사람이 저 취급밖에 못 받나 하는 그런 거에서 나이를 먹었으니까 대우를 해주면 좋잖아요." 시민옹호활동가7

- 시민옹호활동가로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낌

- 교육, 간담회를 통해 시민옹호활동을 배움

시민옹호활동가는 교육을 통해 장애, 장애인 옹호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서히 변화하고 주민을 통한 옹호의 중요성을 직접 느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교육을 받아가지고 들을 때는 생각이 좀 바뀌었다가도 밖에 나가면 사실 잊어먹는 게 많아요. 그래도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장애인을 보고 느끼고 이런 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시민옹호활동가8

매월 진행되는 간담회를 통해서도 함께 활동하는 다른 시민옹호활동가와 활동경험을 공유하며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며 위안을 받고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켜주기도 하였다.

"교육이 교육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시민옹호활동가들끼리 대화하다 보면 궁금증도 풀리고 그랬거든요. 조금이나마 위안도 되고 서로 '저 분은 저렇구나' 이런 거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배우기도 했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랬는데... (중략) 그런 게 되게 힘이 됐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시민옹호활동가5**

- 주변에 있는 장애인 이웃에 관심을 기울임

시민옹호활동가로서 장애인 이웃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옹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찾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기도 하였다. 이는 장애인에게도 자신을 이해해줄 수 있는 이웃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전에 그냥 시장에서 박여사 만난 것처럼 이렇게 스쳤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심히 봐." **시민옹호활동가7**

"(시민옹호활동가의 역할이) 장애, 비장애 격없이 지내는 역할이라고 해서 저는 좋아했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도움받아야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시민옹호활동가4**

"동네에서 되게 유명했어요. 여름에는 겨울옷을 입고 있을 때 '왜 저러고 있어'라고 남이면 그렇게 바라보고 끝났는데 지금은 가서 옷을 하나 덮어줄 수 있잖아요. '추우니까 가자, 빨리' 이렇게 해서 집에 데려가서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고. 시민옹호활동가가 아니었으면 남이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시민옹호활동가로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거죠. 시민옹호활동가를 잘 한 것 같아요." **시민옹호활동가5**

시민옹호활동 실천 사례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과 일상적인 삶을 함께 하며 장애인이 겪는 일상생활 속 크고 작은 권익 침해 상황을 발견하고 적극적인 시민옹호활동을 실천하였다.

1. 장애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장애인의 당시 상황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자신에게 불이익이 될까 걱정하며 자신을 지원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불만사항을 말하지 못하고 있음.
시민옹호 활동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이 겪고 있는 불편함에 대해 공감해줌. 또한, 불만사항을 요양보호사에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설명함. 장애인이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지지함. 장애인이 불만사항을 말하기 어려워 한다면 자신이 말해줄 수 있음을 알려줌. 이후 장애인은 불만사항을 직접 말하고 요양보호사가 바뀌게 되면서 만족도가 높아짐.



"도와주는 분이 청소같은거 맘에 안 들게 하면 내가 할 말을 잘 못하고 참고 있다가 친구가 오거나 전화하면 친구한테 말하면 친구가 직접 말해보라고 얘기해줘서 말했었어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쌓이고 아프니까 말하라고 해요." (장애인)

2.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어려움 직접 지원하기

장애인의 당시 상황	혼자 사는 시각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집안 구석구석 꼼꼼한 청소도 어렵고 확인도 어려움. 또, 외출 시에도 익숙한 길이 아닌 곳을 갈 때나 야맹증으로 밤에는 혼자서 이동이 어려움.
시민옹호 활동	시민옹호활동가가 집에 놀러갔을 때 꼼꼼하게 청소가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고 직접 청소를 도와주기도 함. 또, 시간이 맞으면 복지관 이용, 공원 산책, 동네 탐방, 집으로 귀가 등 장애인이 외부활동을 할 때나 밤에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걸으며 지원함.



"아무래도 제가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발견하지 못하는 걸 잘 도와주세요. 집에 오시면 싱크대에 뭐가 묻었는데 제가 못 보면 알려주시고, 나가서도 손을 꼭 잡고 안전하게 동행해주시고,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장애인)

3.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 지원하기

장애인의 당시 상황	자폐성 장애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혼자 사는 발달장애여성은 평소 집 대문 앞에 앉아있거나 밤늦게까지 동네를 배회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계속 노출되고 있음.
시민옹호 활동	시민옹호활동가는 평소에 장애인의 집을 자주 오가며 장애인이 안전하게 잘 있는지 확인함. 집에 가지 못할 때에는 활동지원사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장애인의 안전을 확인하였음. 밤늦게 활동지원사가 없을 때 집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자 동네를 돌아다니며 장애인을 찾아 집으로 데리고 왔으며, 춥거나 더운 날 밖에 오래 있을 때에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음. 시민옹호활동가와 장애인이 같은 동네에서 가까이 살기 때문에 가능했음.



"그 친구가 집에 있는 게 안도가 돼가지고 지나가다가 여기 가다가 저기 가다가 그냥 집에 있는 거 확인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민옹호활동가5)

4. 복지서비스를 직접 알아보고 알려주기

장애인의 당시 상황	중증의 지체장애인으로 만성질환, 고령 등으로 집안일을 하거나 외출에 어려움이 많음. 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많고 외출도 어렵고 집에만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려고 하지 않음.
시민옹호 활동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의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던 중 장애인이 청소가 제일 어렵고 반찬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됨.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서비스와 밀반찬서비스를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알아보거나 지인에게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함. 이후 장애인에게 신청해볼 수 있도록 권유함. 장애인은 시민옹호활동가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와 밀반찬서비스를 이용하게 됨.



"짜깁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제가 얘기를 해줘서 좋고, 제가 직접은 못해줘도 이런저런데가 있으니까 알아봐라 해서 연결이 된거잖아요. 그러고나서 오랜만에 집에 갔더니 집이 팔끔 해져서 좋더라고요. 침대도 생기고." (시민옹호활동가1)

<p>장애인의 당시 상황</p>	<p>비장애인인 동생과 발달장애인인 막내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됨. 삼형제가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생활 특히, 청소, 빨래, 음식만들기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장애인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함.</p>
<p>시민옹호 활동</p>	<p>자원봉사캠프장으로 활동 중이던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이 이사한 지역의 자원봉사캠프장에게 연락하여 장애인의 집청소를 요청함. 또한, 동주민센터에 청소, 빨래 등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요청함. 현재 장애인은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음.</p>



"이사해서 그 동네 자원봉사캠프장에 부탁을 해서 제가 연결을 했어요. 이사한 집 가서 청소 도와주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와서 집정리도 해주구요." (시민옹호활동가3)

<p>장애인의 당시 상황</p>	<p>집과 교회만 오가면서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혼자 사는 시각장애인은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음.</p>
<p>시민옹호 활동</p>	<p>활동지원사인 시민옹호활동가는 복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시각장애인복지관 정보를 알려줌. 외부활동을 망설이던 장애인에게 적극적으로 복지관 이용을 독려했음. 이후 장애인은 즐겁게 복지관을 다니게 됨.</p>



"언니가 복지관도 알려줘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집, 교회, 집, 교회만 다녔는데 복지관 다니면서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알게 됐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거의 집에만 있게 되고 외부 안 나가는데 언니가 정보를 많이 주세요. 제가 모르는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장애인4)

5. 장애인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기

<p>장애인의 당시 상황</p>	<p>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은 평소 금전관리가 잘 되지 않아 생활비가 항상 부족함. 장애인은 평소 자신에게 자주 밥을 사주고 선물을 주던 시민옹호활동가에게 생필품과 같은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속해서 요구함.</p>
<p>시민옹호 활동</p>	<p>시민옹호활동가는 평소 아들같은 장애인에게 김치, 식사,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었음. 하지만 지속적인 요구에 시민옹호활동가도 힘들고 난감한 상황이 반복됨. 장애인에게 일방적인 물품 제공은 장애인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이 잘 알아들 수 있게 스스로 생필품을 구입하게 하고 금전관리를 잘 할 수 있게 지원함.</p>



"짜깁이 화장지가 없다고 하면 내 돈으로 사다줄 수 있는데 계속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사무소에 화장지 남는 거 있냐고 해서 물어보고 한 적도 있고, 짜깁한테 돈 벌지 않냐고 월급 받으면 한 달 동안 필요한 만큼은 사놔야한다고 말을 해주죠. 처음에는 나도 힘들고 고민되고 사주고 말까 하다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건 아닌 거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죠. 한두 번 보고 말 사이가 아니니까.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시민옹호활동가3)

6. 부당한 부동산 계약 막아주기

<p>장애인의 당시 상황</p>	<p>발달장애인이 전세계약 만료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OO부동산에 집을 내놓음. OO부동산은 발달장애인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내놓은 상황으로 발달장애인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임.</p>
<p>시민옹호 활동</p>	<p>평소 자주 집으로 찾아가 안부를 묻고 통화하던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이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장애인도 시민옹호활동가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사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OO부동산의 계약 관련 내용을 듣게 됨. 이에 시민옹호활동가는 OO부동산에 찾아가 부당한 계약을 막고 원만하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함. 공정한 집계약을 통해 장애인은 임대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모을 수 있었음.</p>



"이전에 짜깁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이 부동산이 악의적으로 너무 싸게 집값을 받으려고 하는 걸 알게 되어서 제가 아는 부동산을 다시 소개해줘서 집 계약을 다시 한 적이 있어요." (시민옹호활동가3)

7. 장애로 인해 병원이용이 어려울 때 동행하기

<p>장애인의 당시 상황</p>	<p>병원에 함께 가줄 가족이 일이 생겨 함께 동행할 지원자가 없음. 장애인은 시각장애로 먼 곳을 혼자 가기 힘들고 이용하는 병원도 길이 복잡하여 혼자서 가기 힘들. 검사 후 눈에 소독약을 넣게 되어 더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p>
<p>시민옹호 활동</p>	<p>먼 거리에 있는 병원에 함께 동행해주고 복잡한 병원 내부에서도 장애인을 지원하여 검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검사 후 소독약을 넣었기 때문에 집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원함. 시력이 더욱 안 좋아졌다는 검사결과에 함께 슬퍼하며 공감하고 위로해줌.</p>



"제가 희귀병이 있어서 1년에 1번 정도 병원에 가야하는데 딸, 사위가 바빠서 못 가는데 눈에 소독약을 넣으면 앞이 안보여서 언니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병원을 동행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장애인4)

<p>장애인의 당시 상황</p>	<p>청각장애인이 처음 큰 대학병원을 이용하게 됨.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도 복잡하고 청각장애로 의사의 진료상담에 어려움 있음. 가족의 지원도 어려워 장애인이 혼자서 병원을 이용하기 두려워하는 상황임.</p>
<p>시민옹호 활동</p>	<p>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의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며 병원 이용에 동행하였음. 여러 번 같이 가주며 장애인이 병원가는 길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음. 진료 시에도 상담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해주고, 병원 이용 후에도 건강이 어떤지 안부확인을 함. 현재는 장애인 혼자서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됨.</p>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어서 시민옹호활동가분이란 같이 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틈나는 대로 전화해서 건강어떠냐고 물어봐주고, 가족이 언니들이 옆에 있긴 하는데 바빠서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도 없어서 혼자 어떻게 가야해야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익숙해져서 지금은 혼자 가요." (장애인3)

8. 위기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고 조치하기

장애인의 당시 상황	자폐성 장애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혼자 사는 발달장애여성이 아는 지인에게 납치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었음. 또, 가해자는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등 명의를 도용하여 장애인에게 2,3차 피해를 입히고자 하였음.
시민옹호 활동	수시로 장애인의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던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의 실종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함. 활동지원사, 주민센터, 구청과 함께 협력하여 장애인을 찾아 나섬. 실종 일주일 후 다친 곳 없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왔고 장애인복지관과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지지함.



"없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아는 친한 언니가 어디를 가자고 그랬대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이 친구한테 있는 걸 다 뺏기 위해서 신분증 다시 발급받고 이러다가 걸린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결국엔 그 친구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오고 그러면서 주저앉으면서 요양원 가고 막 치매 더 심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시민옹호활동가5)

4. 사업 성과

1) 장애인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식하게 됨

장애인은 시민옹호활동가와 주고받는 경험,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경험, 대화를 주도한 경험,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해결한 경험,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경험 등을 통해 스스로 권리가 있는 주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양적연구 결과인 자기효능감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장애인이 자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기옹호역량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자기옹호 역량 강화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주민으로 바로 서게 되는 장애인 지역통합의 뜻깊은 첫 걸음이 되었다.

"친구가 있어서 든든해요. 혼자였으면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친구가 응원해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가 해줄 수도 있지만 내가 직접 얘기해야 하잖아요." 장애인1

2) 장애인의 지역사회 기반 관계망 및 활동 확장

장애인 대부분이 중증의 장애로 외부활동을 시도하지 않거나 지원체계가 전무하여 이웃과의 교류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시민옹호활동가도 그냥 지나가던 이웃이었다가 이제는 동네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었다. 그리고 시민옹호활동가를 통해 새로운 친구, 이웃을 사귀게 되기도 하고,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간 가게 직원 등 지역주민들을 마주치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관계망이 확장되었다. 확장된 관계망을 바탕으로 지역시설을 이용하거나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지역활동 참여를 이끌어냈다.

양적연구 결과에서도 활동, 경험, 지역사회 이용, 이웃관계 등을 묻는 사회적 자본 영역이 가장 큰 변화폭을 보이며 사업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지역활동과 관계망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교류가 늘어나고, 관계형성의 적극성이 향상되었다. 장애인이 당당한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지만 우리도 만나면 맛있는 밥 먹고 차 마시고 산책해요. 낙성대공원 축제도 갔었어요. 이야기도 하고 셀카도 찍고 재미있게 있다가 가서는 저한테 카톡으로 언니 오늘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즐거웠다고 재밌었다고.” **시민옹호활동가6**

3) 시민옹호를 통한 장애인의 일상적 권익옹호 지원망 마련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많은 복지기관들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권익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옹호이고, 시민옹호는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지역주민이 실천한다.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은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장애인을 수혜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장애와 옹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정기간담회를 실시하여 장애인 이웃과 상호동등한 관계라는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

시민옹호활동가로 성장한 지역주민은 장애인과 함께 일상을 보내면서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일상적인 권익침해상황을 가까이에서 지원하였다. 앞선 시민옹호 사례들을 통해서도 장애인의 생활 속에서 즉각적이고 예방적인 권익옹호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의 일상적 권익옹호 지원망으로서 장애인을 지지하고 조력하고 대변하며 나아가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장애인의 친구, 이웃이 되어 계속해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짜깁이 사회에 나가있는데 옆에 누가 있다, 지켜주는 이모가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될 거 같아요.” **시민옹호활동가3**

“옆에서 이야기하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래도 외롭죠.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게 이웃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옹호활동가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민옹호활동가4**

5. 향후 계획

1) 장애인에 대한 자기옹호역량 강화 지속

- **교육을 통한 권리인식 강화**

자기인식, 자기표현, 자기권한 지키기, 다양한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역할, 자신감 가지기 등 인권과 자기옹호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강사의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옹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 교육은 장애유형별로 진행하여 장애특성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 **다양한 역할 수행을 통해 주체적 권리 실천 독려**

장애인의 실제 생활 속에서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시민옹호활동가와 함께 자기옹호활동을 계획하여 함께 실행해보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자기옹호활동을 실천할 때에는 시민옹호활동가 뿐만 아니라 가족, 개별지원자, 다른 지역주민들도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지원자의 역할이 대부분의 생활에 영향을 받는 만큼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자신을 스스로 옹호하고 시민옹호활동가 뿐만 아니라 가족, 지원자, 지역사회에서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장애인-시민옹호활동가 지역활동 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결 지원**

장애인, 시민옹호활동가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지역활동을 적극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가 지역사회에서 더욱 다양한 지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들을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에게 연결하고자 한다. 체험공방 이용, 단골 맛집 만들기, 지역사회 명소 이용, 본관의 정담은가게 이용 등 다양한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축제에 함께 참여하여 사업 홍보활동을 하거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활동, 봉사활동 등 의미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취미활동 지원**

인터뷰 진행 시에도 참여자들 대부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취미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나타냈다. 스몰스파크 사업과 연계하여 공통의 관심사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거나 개별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는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참여자들이 주체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일상적 권익옹호 지원망 확대

- **신규 시민옹호활동가 발굴**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옹호활동가의 적극적인 활동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옹호활동가를 추가 발굴하고자 한다. 기존 시민옹호활동가가 멘토가 되어 신규 시민옹호활동가에게 활동 팁을 공유하거나 활동에 대해 지지하며 시민옹호활동가들의 자조적인 활동으로 사업운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옹호활동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한다.

- **지역사회 옹호 네트워크 강화**

시민옹호활동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장애인의 옹호를 지원하는 옹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현재는 권익침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옹호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보다 예방적인 권익옹호실천을 위해 정기적인 옹호네트워크 모임을 갖고자 한다. 그리하여 누구나 일상적인 삶을 누리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

제2절 스몰스파크

1. 연구방법

스몰스파크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양적·질적연구를 실시하였다. 각 연구별로 대상에 차이가 있는데, 양적연구는 2021년 참여자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하였고, 질적연구는 2019-2021년 참여자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1) 양적연구 방법

양적연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상자로 사업 참여자를 구분하여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스몰스파크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변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Segal&Aviram(1978)이 개발하고 황보옥(2011)이 수정한 사회통합척도를 사용하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의 성과측정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설문조사는 2021년 사업 참여자 총 2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통합 모임 활동 기간 전, 후인 2021년 5월과 2021년 10월에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SPSS V18.0 통계패키지를 통해 비모수 통계분석(윌콕슨 부호순위검정)을 활용하였다.

<표2-1> 설문 주요 내용

참여자구분	내용
장애인	[사회통합척도] 소비성 (소비활동 정도) 접근성 (지역사회 시설 접근 정도) 참여성 (사회활동 참여 정도)

참여자구분	내용
비장애인	[서울시복지재단 성과측정 설문조사]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장애인 인권 및 포용

2) 질적연구 방법

질적연구는 참여자들의 의미있는 경험과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초점 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FGI에는 장애인 참여자 총 9명, 비장애인 참여자 총 8명 총 17명이 참여하였다. FGI 진행은 참여 년도와 장애 유·무를 기준으로 나누어 2020년까지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여자 각 1그룹씩, 2021년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여자 각 2그룹, 총 6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회당 2시간 이내로 진행하였다. 질문은 구조화되지 않은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을 녹취하고 전사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귀납적 주제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표2-2> FGI 주요 질문

참여자구분	질문 내용
장애인	- 참여 동기 및 목적 - 참여 중 주요 활동 경험 • 모임 내에서 맡았던 역할 • 모임 참여 이후 일상의 변화 - 참여 이후 주요 변화 및 모임 지속 또는 중단 이유 - 사업의 의미
비장애인	- 참여 동기 및 목적 - 참여 중 주요 활동 경험 • 장애인과 함께 활동 했던 경험 •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 - 참여 이후 주요 변화 및 모임 지속 또는 중단 이유 - 사업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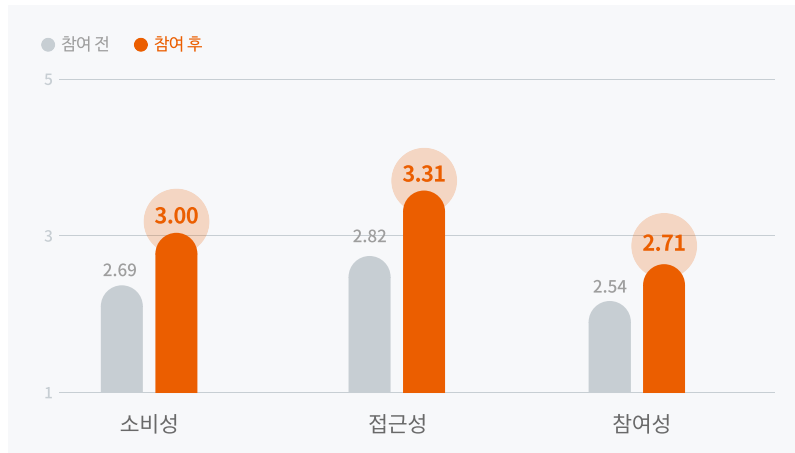
<표2-3> FGI 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구분	연번	이름	성별	나이	장애유형	장애정도	참여년도
집단1 (장애인)	1	장애인1	여	60	시각	심함	2019
	2	장애인2	여	50	발달	심하지 않음	2020
	3	장애인3	여	20	발달	심하지 않음	2020
집단2 (장애인)	4	장애인4	남	70	지체	심함	2021
	5	장애인5	여	50	뇌병변	심함	2021
	6	장애인6	여	60	지체	심하지 않음	2021
집단3 (장애인)	7	장애인7	남	40	뇌병변	심함	2021
	8	장애인8	여	60	지체	심하지 않음	2021
	9	장애인9	여	60	뇌병변	심하지 않음	2021
집단4 (비장애인)	10	비장애인1	여	60	-	-	2019 ~2020
	11	비장애인2	여	60	-	-	2019
	12	비장애인3	여	50	-	-	2020
	13	비장애인4	여	70	-	-	2020
집단5 (비장애인)	14	비장애인5	여	50	-	-	2021
	15	비장애인6	여	60	-	-	2021
집단6 (비장애인)	16	비장애인7	여	60	-	-	2021
	17	비장애인8	여	40	-	-	2021

2. 양적연구 결과

1) 장애인

2021년 사업 참여 장애인 13명의 사회통합척도 검사 결과를 SPSS V18.0 통계패키지를 통해 비모수 통계분석(윌콕슨 부호순위검정)한 결과 척도의 3가지 영역 중 접근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합 모임 활동을 하며 지역의 다양한 시설을 이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표2-4> 장애인의 소비성, 접근성, 참여성 변화

성과개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Z	P
소비성	참여 전	13	2.69	0.74	0.31	-1.698	0.090
	참여 후	13	3.00	0.51			
접근성	참여 전	13	2.82	0.72	0.49	-2.710	0.007*
	참여 후	13	3.31	0.78			

성과개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Z	P
참여성	참여 전	13	2.54	0.82	0.17	-1.341(a)	0.180
	참여 후	13	2.71	0.82			

• 소비성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 소비활동에 참여하는 빈도를 총 4개의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소비성의 모든 문항은 사업 참여 전에 비하여 참여 후의 평균이 근소하게 증가되었다. 그 중에서도 카페나 식당 등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아졌는데, 이는 통합 모임에서 카페나 식당을 이용하는 활동이 많아 점수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각 모임당 50만원이라는 활동비 지급으로는 참여자들의 지역 내 소비활동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5> 장애인의 소비성 변화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1	평소 카페나 식당에 가십니까?	2.54	3.00	0.46
2	평소 쇼핑센터나 동네 상가에 가십니까?	2.77	3.08	0.31
3	일주일에 얼마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십니까?	2.15	2.54	0.38
4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동네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십니까?	3.31	3.38	0.08

• 접근성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때 이용하는 총 9가지의 시설 별로 이용이 용이한지 접근성을 조사하였다. 지역통합척도의 3가지 영역 중 유일하게 접근성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합 모임의 활동을 위해,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시설들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세부 항목 중 인터넷 이용 항목의 증감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통합 모임 활동을 ZOOM, 밴드 등의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인터넷 이용 경험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표2-6> 장애인의 접근성 변화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1	백화점 / 시장 / 슈퍼마켓	2.77	3.38	0.62
2	영화관 / 공원 / 놀이시설	2.23	2.54	0.31
3	카페 / 식당 / 술집	2.38	3.00	0.62
4	미용실	2.69	3.38	0.69
5	은행 / 동 주민센터 / 우체국 / 복지관	3.62	3.85	0.23
6	병원 / 보건소 / 약국	3.69	3.69	0.00
7	종교기관 (교회, 성당, 사찰 등)	2.62	3.23	0.62
8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2.92	3.31	0.38
9	인터넷 이용	2.46	3.38	0.92

• 참여성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8가지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성을 조사하였다. 전반적으로 사전 점수에 비하여 사후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참여성 영역에서 가장 점수 변화가 높은 항목은 사회활동 참여로, 응답자들이 스포스파크의 통합 모임을 통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험이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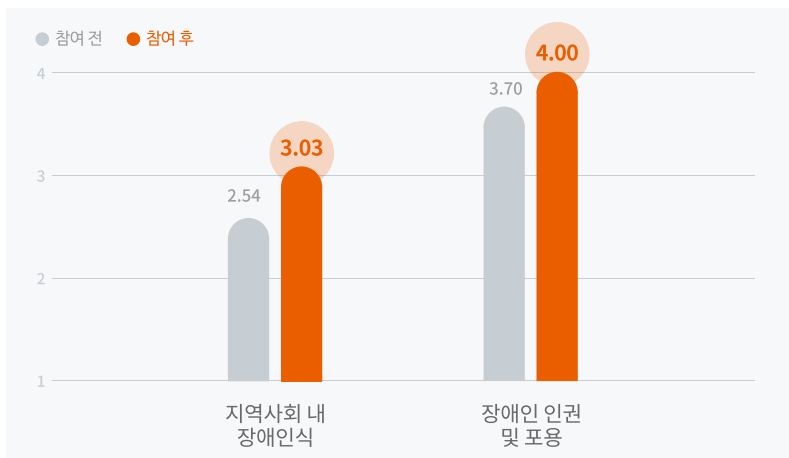
<표2-7> 장애인의 참여성 변화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1	친척방문 및 모임참석	2.54	2.85	0.31
2	주변의 절친한 사람 만나기 (친구, 이웃, 직장동료)	3.54	3.62	0.08
3	종교활동 (교회, 사찰, 성당 등)	2.62	2.77	0.15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4	여가활동 (취미교실, 단체운동, 레저활동 등)	2.69	2.85	0.15
5	영화, 연극관람	2.23	2.00	-0.23
6	사회활동 참여	2.23	2.69	0.46
7	쇼핑하기	2.23	2.54	0.31
8	외식하기	2.23	2.38	0.15

2) 비장애인

2021년 사업 참여한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권 및 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장애인 인권 및 포용 정도가 높았던 참여자들이었으나, 통합 활동을 통해서 더욱더 장애인의 인권과 포용에 관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표2-8> 비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장애인 인권 및 포용 변화

성과개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	Z	p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참여 전	7	2.54	0.288	0.49	-1.863	0.063
	참여 후	7	3.03	0.531			
장애인 인권 및 포용	참여 전	7	3.70	0.424	0.30	-2.032	0.042*
	참여 후	7	4.00	0.000			

•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을 인식하는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항목에서 사업 참여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보다 향상되었다. 특히 장애인과 소통하고 관계 형성에 관한 문항인 1번부터 3번까지의 점수가 두드러지게 확대 된 것이 확인되는데, 이는 통합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애인과 함께 활동하며 소통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2-9> 비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변화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1	장애인은 외부와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2.29	1.43	-0.86
2	장애인은 대체로 비장애인보다 다가가기 어렵다.	2.71	1.86	-0.86
3	장애인과는 주의해서 말해야 한다.	3.14	1.86	-1.29
4	대부분의 장애인은 걱정거리가 많다.	2.86	2.43	-0.43
5	장애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늘 도움을 주어야 한다.	2.43	1.86	-0.57
6	장애인은 외부와 단절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다.	3.00	3.43	0.43
7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3.29	3.57	0.29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8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일반적인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	3.29	3.43	0.14
9	장애인의 능력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2.57	2.57	0.00
10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자기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	3.86	3.86	0.00

1,2,3,4,5,9번 역문항

• 장애인 인권 및 포용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포용 정도에 대해 묻는 영역에서는 응답자들은 사업 참여 후 모두 가장 높은 점수로 응답하였다. 특히 장애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항목이 가장 변화폭이 컸는데, 실제 FGI에서도 해당 항목과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며 장애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2-10>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권 및 포용 변화

연번	문항	참여 전	참여 후	증감
1	장애인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71	4.00	0.29
2	장애인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자격이 있다.	3.71	4.00	0.29
3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3.86	4.00	0.14
4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3.86	4.00	0.14
5	모든 장애인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	3.86	4.00	0.14
6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상점, 식당, 편의시설 등) 이 부족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3.71	4.00	0.29

7	장애인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3.71	4.00	0.29
8	장애인이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3.71	4.00	0.29
9	장애인이 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3.14	4.00	0.86

3) 소결

2021년도 사업 참여 장애인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척도 검사 결과, 하위 3가지 영역 중 접근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통합 모임의 활동을 위해, 다른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시설들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세부 항목 중 인터넷 이용의 점수가 가장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통합 모임의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며 참여자들의 인터넷 이용 경험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모임당 지급된 50만원의 활동비는 참여자들의 지역 내 소비 활동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 또한 참여성 영역에서는 스몰스파크의 통합 모임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이외에 다른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확대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에 질적평가에서 보다 자세하게 장애인의 지역사회 활동 경험에 관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2021년 사업 참여 비장애인 7명에게 진행한 장애인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 인권 및 포용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장애인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항목이 가장 변화폭이 컸는데, 실제 FGI에서도 해당 항목과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며 장애를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 질적 연구 결과

친밀한 공동체 활동

- 함께 한다는 즐거움
-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하며 활동
- 힘든 여건에도 모임을 지속하려 노력
- 구성원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 수행

새로운 나를 만남

- 발전된 나
- 남을 도울 수 있는 나
-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자심감 있는 나
-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

1) 친밀한 공동체 활동 경험

• 함께 한다는 즐거움

스몰스파크는 모임, 집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들은 속한 모임에서 다른 회원과 상호작용하며 집단의 역동을 경험했다. 특히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활동들도 모임을 통해서라면 할 수 있었다.

온라인을 통해 작품을 공유하는 캘리그래피 모임에서는 매일같이 연습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혼자라면 건너뛰었을 연습도 달리는 댓글이 보고 싶어서, 다른 회원들이 기다릴까봐서 연습하고 사진을 찍어 올렸다. 손이 아파 뜨개질을 오래 하지 못했던 뜨개질 모임의 장애인 참여자는 다른 회원들에게 자신이 뜨개질해서 만든 것들을 보여주는 재미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뜨개질을 뒀다.

"이게 쉬운 게 아닌데 하다 보니까 공감대를 이루니까 나 혼자 그러면은 이게 안 해질 텐데.

여럿이서 막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해요." 장애인8

"여기서 이제 뜨니까 나 혼자 이제 안 하면 돼. 근데 이번 주에 가서 이제 이것 좀 보여줘야

지. 그러면서 막 뜨는 거지 모임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9

이러한 경험들은 참여자들에게 혼자일 때와는 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스몰스파크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무엇인가를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존중하며 활동

참여자들은 모임을 지속하며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같은 모임의 장애인이 가진 장애 특성을 받아들이며 함께 활동했다.

서로를 이해하는 첫 시작은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부터였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사는 동네는 어디인지 같은 일상의 내용이였다. 그러면서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깜짝 놀랐던 발달장애인의 행동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 행동의 의미를 알아 하나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뇌병변장애인 회원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 위해 노력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점심 때는 음식에 대해서 이게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가 그런 걸 많이 물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좋아하는 거 또 알게 되고 어디가 또 음식이 맛있다고 또 해줘서 그렇게 가서 하고 그래요." 장애인6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며 '아 저 친구는 친해지면 사람 발을 만지는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제 발을 만져도 당황스럽지 않고 친해졌다는 의미라고 받아 들였죠." 비장애인1

"나들이를 가기로 했는데 휠체어 타시는 분도 가실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가기로 했어요. 또 혼자 버스를 못 타시는 분이 계셔서 근처 사는 회원이랑 같이 오신대요." 비장애인7

스몰스파크의 통합모임에서는 비장애인 참여자에게 이해하고 존중하는 역할이 강제적으로 요구되지 않았다. 참여자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런 자연스러움이 스몰스파크가 가진 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힘든 여건에도 모임을 지속하려 노력**

코로나19 이후에는 만남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모임을 지속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온라인 활동을 처음으로 시도한 모임들이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정기 모임을 온라인 ZOOM으로 대체한 모임의 경우, ZOOM 어플을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담당자와 참여자가 일대일로 실습하기도 하고, 처음 온라인 모임 때에는 모든 회원이 만나기까지 30분이 걸리기도 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참여자가 익숙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도 카카오톡, 밴드, ZOOM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서로 이어지고자 노력했다.

"만나지 않고 각자 집에서 만들어서 공유하고 했었어요. 주로 카카오톡으로 많이 얘기하고 자주 사진 올렸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는 언니들은 힘들어하시긴 했죠. 만나는건 가끔 재료 사서 나눌 때 얼굴 보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런 정도로 활동했어요." **비장애인3**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왔을 때 줌으로 계속적으로 연결하려고 노력을 했고 익숙해지니까. 처음엔 어려웠지만 이제는 줌도 잘 써요. 밴드는 항상 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책, 유튜브에서 자료들을 찾아다가 좋은거 올리고 추천해줘요. (중략) 그렇게 다 같이 열심히 하니 우리는 결석생이 없어요. 인원 체인지도 안됐어요." **장애인5**

다양한 방법으로 모임을 지속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노력이 서로에게 비춰졌다. 함께하는 모임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참여자들은 나만 활동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활동하는 ‘우리’의 모임이라는 생각에 회원끼리 더욱더 끈끈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

- **각 구성원이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 수행**

스몰스파크의 참여자들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경험했다. 스몰스파크는 활동비를 지원해주지만,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지, 활동비를 어디에 쓸지는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활동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모임 구성원들이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모임의 모든 구성원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회장이나 총무같이 모임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더라도 모든 구성원이 자신만의 역할을 맡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했다.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참여자들은 담당자와의 개별 상담을 하며 모임 활동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온라인 게시글에 빠지지 않고 댓글 달기, 매일 아침 카카오톡 단체 방에 아침인사 글 올리기 등 작지만 모임에 중요한 나만의 역할을 찾아 나갔다.

장애인 참여자들에게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경험이 적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등과 같이 과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질 경우 굉장히 부듯해하며 열심히 역할 수행을 하였다.

비장애인 참여자들 역시 장애인 참여자들을 보며 자극을 받고 자신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누구는 회장을 하고 누구는 총무를 하고 하는데 장애인 분께서 총무를 하시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는 밴드를 책임 지겠다고 했어요." **비장애인5**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게 댓글 다는 거라고 생각해서 매일 댓글을 달았어요. (중략) 그리고 다른 분들이 애써주시는 거에 대한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의무적으로." **비장애인7**

스몰스파크에서는 회장과 총무 등의 핵심 역할을 정할 때 장애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누가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누가 모임에 가장 열정이 있는지가 더 중요했다. 또한 댓글 달기 같은 작은 역할일수록 모임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이렇게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지역통합의 시작을 볼 수 있었다.

2) 새로운 나를 만나는 경험

• 발전하는 나

스몰스파크 참여자는 평소 뜨개질이나 캘리그래피 등 관심이 있던 취미활동을 위해 스몰스파크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들은 통합 모임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이 좋아질수록 큰 만족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부듯해하고 즐거워했다.

"내가 정말 글을 못 썼거든요. 아예 평생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는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그래요.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나오니까 뿌듯하죠." **장애인8**

애초부터 원하던 활동인지라 매일같이 즐겁게 참여하였고, 자신의 성취를 남들과 나누기 좋아하여 카카오톡, 밴드 등에 자신의 활동을 게시하기도 했다.

• 남을 도울 수 있는 나

이 경험은 장애인 참여자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바자회에서 물건을 사기만 하다가 자신이 직접 만든 물품을 후원하기도 하였고, 나들이 활동 전에 휠체어 이동 동선 확인을 위한 사전답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진 역량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활동을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며 참여자들이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3년 전에는 내가 바자회에서 물품을 사갔는데 이제는 내가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거. 내 재능을 발휘해서 참여(후원)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죠." **장애인6**

"내가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중략) 여행 떠나기 전에 내가 한번 먼저 갔다 와요. 휠체어를 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가 확인하려고 내가 답사를 하게 돼요." **장애인4**

특히 이러한 활동을 할 때면 참여자들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할 때보다 더욱 설레하는 표정과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의 그 모습에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다른 이에게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정신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자신감 있는 나

장애인 참여자들은 이전이라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들, 해본 적 없는 것을 통합 모임 활동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 장애를 입고 나서는 뜰 수 없다고 생각한 뜨개모자도 뜰 수 있었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무엇인가를 실제로 해나가는 성공 경험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었다.

"바늘을 잡을 수가 없으니깐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 노력을 하고 나면 행복해.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장애인9

"그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사람 상대하고 하니깐 어딜 가도 떳떳하게 누구 앞에서도 설 수가 있고, '내가 모든걸 다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장애인1

참여자들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모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회활동을 확대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도 이러한 스몰스파크를 통한 성공경험과 자신감이, 참여자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나

참여자들의 실력이 향상되고, 남을 도울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기며 변하는 모습을 참여자 주변 가족과 지인들이 인정하고 격려해주었다. 통합 모임의 활동을 하며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느끼고 있던 참여자들에게 가족들의 응원, 지인들의 칭찬과 격려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고 인정해준다고 느끼게 하여 더욱 활동을 열심히 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주었다.

"사람들이 '집사님도 이제 다 이렇게 1박 2일로 여행도 할 수 있고 좋잖아. 할 수 있잖아.' 그래요." 장애인7

"아기 학교 보내면 학교 앞 카페에서 그냥 스케치 하고 있고 이러니까 애들이 '언니 이거 예쁘다~ 나도 해보고 싶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장애인8

4. 사업 성과

1) 단절되어있던 장애인의 사회활동 출발점

스몰스파크 사업은 장애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기회가 되었다. 복지관이 아니면 밖을 나오지 않거나 혹은 복지관조차 나오기 힘들어하는 장애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모임을 시작했다.

"나를 밖으로 나오게 했어. 저도 복지관 아니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분들 만나면 밖에서도 만나요. 만나면 식당에 가서 서로 점심을 사요. 내가 사면 다음에 저 사람이 사는 식으로 해요. 밖에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장애인9

가장 중요한 성과는, 장애인이 모임의 구성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복지관 안이 아닌 지역의 생활환경 안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 참여가 아닌 주체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는 장애인 참여자 대상으로 진행한 양적연구에서도 나타났다. 사회통합척도에서 지역사회 시설 이용 빈도를 확인한 접근성 부분이 유의미하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들의 이러한 경험은 지역통합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처음 사업을 계획한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로 볼 수 있다.

2) 장애인이 자신을 사회 구성원으로 재인식함

통합 모임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친밀한 공동체를 경험하였는데, 그 속에서 장애인 참여자는 스스로를 사회 구성원으로 재인식 할 수 있었다.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장애인들은 타인과의 상호 소통과 호의적인 관계의 형성, 모임에 대한 소속감 등을 경험하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였다. 이러한 경험들은 장애인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깨닫게 하여 자신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했다.

"저희도 이렇게 모임하고 기술을 갖다 보니까 기술을 가짐으로써 내가 떳떳한 사회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술이 없으면,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써 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장애인 5

3) 장애로 가려져 있던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함

장애인 참여자들은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자신이 가진 역량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장애인 참여자들의 대다수가 자신이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취미 활동, 여행 혹은 집단 활동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통합 모임을 기회로 다양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고, 자신의 역량을 알고 개발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했다.

"뜨사모 덕을 너무 많이 봐서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제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던 그 숨어진 능력을 살려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좋아요. 바자회라든지를 통해 내가 만든 물건을 나눔 하는 것도 뜨사모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잖아요." 장애인 6

4) 장애를 넘어 사람을 만남

비장애인 참여자들은 스몰스파크 사업에 참여하며 장애인과 함께한 경험이 아니라 같은 모임의 동료와 함께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장애인을 휠체어를 타고 있어서 도와주어야 하는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캘리그래피를 배우거나 나들이를 같이 가는 이웃으로 바라본 것이다. 그러자 장애는 회원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이 되었다.

"서로 장애인이다 비장애인이다를 떠나서 같이 캘리그래피를 배우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 느꼈어요." 비장애인 5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황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며 괜찮아졌어요. (중략) 자연스럽게 대하게 된거죠. 특별하게 장애인이라고 대하는게 아니라." 비장애인 1

기존에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하거나 장애 에티켓을 알려주는 등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스몰스파크는 기존의 사업과는 달리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중심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의미 있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향후 계획

1) 통합 모임의 안정적인 만남과 활동 지원

스몰스파크 사업의 지속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 모임이 안정적으로 만나며 함께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내 소모임의 수와 활동이 적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스몰스파크 사업에게는 모임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다양한 비대면 활동 지원

이번 연구로 비대면 활동이 대면 활동처럼 참여자들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것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온라인과 같은 비대면 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참여자의 연령대, 장애 특성, 활동 내용 등 모임의 특성에 맞추어 참여가 용이한 온라인 채널을 찾는 게 중요하다. 또한 모임의 모든 구성원이 비대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외되는 참여자의 경우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지역 내 공유공간 개발

FGI에서 코로나19 이후 많은 모임이 활동 장소를 구하지 못해 모임 활동을 하지 못한 경험을 이야기했다. 이처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한 활동 장소가 있을 때 모임의 활동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19에서도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지원하고자 하며, 이때 장애인 참여자의 접근성은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시설 외에 지역 내 공유공간을 개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의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보다 지역통합의 의미를 높이하고자 한다.

2) 지역통합에 기여하는 통합 모임으로 성장을 지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변화와 모임의 활성화 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합 모임이 지역에서 갖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통합 모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기에,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널리 알려지는 것 자체로 지역통합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스몰스파크에서는 단순히 참여자끼리의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을 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에서 활동하고 확대하여 지역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지역활동의 청사진 제공

통합 모임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모임이 확대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모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활동 방법을 모임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 뜨개질 모임이라면 연말에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뜨개질 물품을 후원하기, 나들이 모임이라면 지역 축제 방문 등을 모임에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지점은, 모임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는 작은 지역 활동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지역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모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활동을 제안하게 될 경우 부담을 가진 참여자들이 활동을 중단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통합모임 활동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통합 모임의 지역 활동을 위해서는 지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담당자는 통합 모임 활동에 연계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는지 지역을 항상 살펴야 한다. 장소, 활동, 사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이 연계될수록 통합모임의 지역 활동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3) 담당자가 참여자와 모임,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로서 역할 수행

마지막으로 담당자는 변화를 끌어내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스몰스파크의 통합 모임이 단순한 주민 모임이 아닌 장애인도 동등한 주민으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담당자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적절한 시기와 상황 속에서 책임을 다할 때 스몰스파크가 지역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

- **모임 내 장애인 참여자 개인 특성 파악 및 개별적인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모임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모임 내 모든 참여자가 모임을 즐거워하고 자신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모임 초반, 담당자가 장애인 참여자가 장애 특성으로 모임 활동에 어려움은 없는지, 모임 내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등의 개인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모임이 아닌 참여자 한명 한명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스몰스파크의 지원 단위가 ‘모임’이라 할지라도 개인이 가진 어려움을 놓치지 않고 특히 장애 특성으로 인해서 모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통합 모임의 중재자 역할**

통합 모임이 일정 정도 이상 자생력을 갖춰 운영이 가능할때까지는 지속해서 역동을 관찰하고 중재하는 역할로 담당자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통합 모임의 경우, 참여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자신들만의 의사소통 방식을 정하여 모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때까지는 각자의 입장을 대변해주거나 상대방의 목소리를 설명해주는 중재인이 필요했다. 특히 모임 내에서 장애인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고 함께 활동하는데는 담당자의 중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참여자가 장애가 아닌 사람을 바라보며 모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중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함께
어깨걸고
가는 길



제3장

우리들의 이야기

제1절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제2절 스몰스파크

제1절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활동사진

시민옹호활동가 정기간담회

시민옹호활동가는 매달 복지관에 모여 자신의 활동소감을 나누고 짝꿍에게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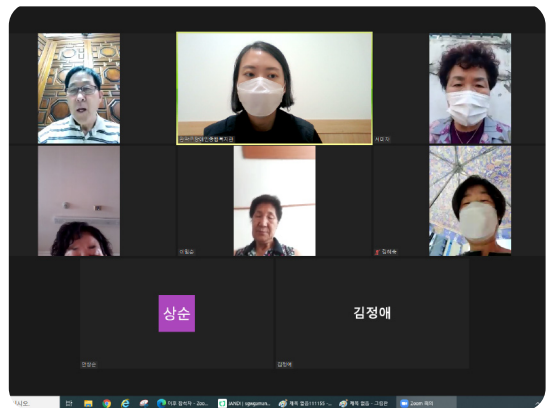
다른 시민옹호활동가의 활동소감을 들으며 공감하고 또 배우며 다양한 시민옹호활동을 배웁니다. 활동 공유를 통해 동기부여를 느끼기도 합니다



시민옹호활동 소감을 나누고 공감해요~



시민옹호활동의 방향성을 논의해요!



코로나19에서도 간담회는 계속 됩니다!

역량강화 교육

시민옹호활동가는 전달교육을 통해 장애와 옹호에 대해 배우고, 기관방문하여 장애인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배웁니다.

장애인도 인권, 차별, 존중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며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시민옹호활동가들이 반가운 인사를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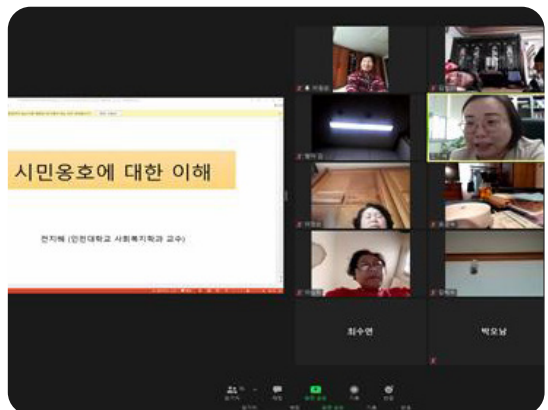
나(장애인)의 권리를 알아가요~



기관에 방문하여 현장을 배워요!



장애와 옹호에 대해 배워요!



온라인으로 배움을 이어가요~

시민옹호활동

시민옹호활동가는 장애인과 1:1매칭되어 동네에서 만나 식사 같이 하기, 선물 주고 받기, 일상대화하기 등 친밀한 이웃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에티켓, 장애바로알기 등 옹호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장애에 대해 알려줘요~



장애인도 함께 참여하는 옹호캠페인~



동네 가게 사장님도 함께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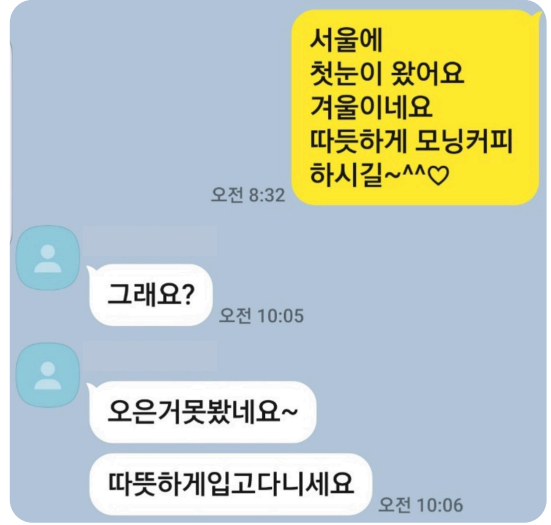
동네 카페에서 기념사진 한 장~



방역을 잘 지키며 만나요~



언제봐도 반가운 얼굴~



메시지로도 마음을 나뉘요!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요!



우리는 다정한 친구사이~



짜꿍에게 가방을 선물했어요!



코로나19가 끝나는 날을 기약하며~

워크숍 & 송년행사

장애인과 시민옹호활동가는 함께 모여 나들이를 떠나 가을 만끽하기, 재밌는 체험활동을 하며 행복한 추억을 만듭니다.

또, 비누, 캔들만들기 등 원데이클래스 활동을 하며 즐거웠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더욱 기대되는 새해를 함께 맞이합니다.



모두 함께 가을을 만끽해요!



소중한 추억을 간직해요~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요!



화면을 통해서 연말인사를 나눠요!



가까운 관악산공원에 함께 다녀와요~

시민옹호활동가에게 묻습니다!

오랫동안 짝공과 함께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사회에 환원해야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건강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고맙고 그래요.” (봉O순)

“짝공을 만나고 오면은 내가 기분이 업되어 있어요.” (이O금)

“나라고 뭐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구나, 짝공이 좋아하는 모습 보고 저도 좋았어요.” (이O순)

“바로 인연아닐까요. 맺어진 건데 무 자르듯 자를 수 없잖아요.” (오O실)

“막내동생 같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어요” (김O숙)

“길거리에 가다가 그 친구가 나를 알아보고 웃어 주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O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짝공이 제 인연이 됐잖아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짝공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안O순)

“짝공과 같이 동행하니 내 마음이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 더 들어요.” (최O연)

모두에게 묻습니다!



* 발달장애인에게는 사진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사진을 제시하여 그 중 선택한 사진을 실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야기



무슨 말을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참여자의 이야기를 듣거나 전하는 역할을 주로 하다가 저의 이야기를 남기려니 매우 어색하네요.

저는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관악구에 처음으로 문을 열고, 이듬해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이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주민분을 만나기 위해 동네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바라는 것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누군가와 구분되지 않고 누구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진정한 장애인의 통합은 무엇일까 항상 질문했죠. 그 질문의 끝이 아닌 시작에 바로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장애인의 권익옹호, 시민옹호를 통한 일상적 권익옹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웃이 실천하는 '시민옹호'는 그 누군가가 더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모두가 마음 깊숙이 느낀다면 큰 축복이겠지요.

오랜 시간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책임감과 열정을 쏟은 만큼 너무나도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오고 계시는 시민옹호활동가분들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비록 중간에 아쉬운 이별을 했지만 시민옹호활동가로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던 다른 시민옹호활동가분들도 저에게는 영원한 시민옹호활동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했고 또 행복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에 함께한 또 다른 참여자인 짝꿍분들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악구에 시민옹호활동가가 점점 많아질 그 날을 위해, 그래서 장애를 넘어 모두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그 날을 위해 모두모두 화이팅!

사례옹호팀 팀장 **온지혜**

제2절 스몰스파크

2019	모임 하나	턴투에이블
	모임 둘	여정회
	모임 셋	우리는 영원한 친구
	모임 넷	셋별
	모임 다섯	즐거운 바둑 모임
	모임 여섯	드림 코리아
	모임 일곱	모두가 다른 우리

2020	모임 하나	함께 걷는 사람들
	모임 둘	이루는 모임
	모임 셋	진달래 모임
	모임 넷	이음
	모임 다섯	너나들이
	모임 여섯	모두가 다른 우리

2021년
참여 모임의
이야기

모임 하나
모세의
기적

모임 둘
뜨.사.모

뜨개질을 사랑하는 모임

모임 셋
꿈꾸는
낙시 마을

모임 넷
문학
마을

모세의 기적

모임소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들이 모였습니다.

몇 년을 매일같이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에 모여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 날이면 앉아 있는 휠체어를 타고 함께 경치 좋은 곳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21년 올해는 스몰스파크를 만나, 드디어 아파트 정문을 나서 보았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며 넓게 펼쳐진 바다와

6.25 때에도 보지 못했던 큰 비행기도 구경했습니다.

처음엔 낯설던 아파트 밖 세상도, 어렵던 지하철 타기도

이제는 신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갈지 어떤 경험을 할지 하루하루가 기대 됩니다.

모임 구성원

총 5명

장애인 3명 비장애인 2명

덕분에 내일이 기대됩니다.

모세의 기적 신현철

우리 팀은 나이가 다 70이 다 넘어서 고생만 하던 사람들이예요. 거기에 장애가 온 사람도 있고 아님 사람들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은 전부 다 휠체어 장애인들이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디 다니지 못해요. 맨날 아파트에만 있고 안 그러면 시장이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날씨 좋을 때나 단풍들 때에 좋은 구경도 하고 걷는 연습도 하고 싶다고 자주 생각했는데, 마침 복지관에 좋은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멀리 좀 나가보자 해서 맨날 만나던 장애인들 외에 아파트 단지에서 비장애인을 모아서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 식물원을 다녀왔어요. 다들 식물원을 처음 와봤다며 좋아하면서 또 가자고 해서 두 번째는 소래포구로 갔다 왔어요. 거기서 잘 먹어보지도 않던 조그만 회 하나 시켜놓고 같이 먹으며 차담하고 왔습니다. 우리 팀이 다들 평생 처음으로 나들이 나왔다고 좋아했습니다. 그 뒤로 코로나19 때문에 만나지 말라고 해서 계속 못 만나다가 10월에 또 2차례 남산으로 전쟁기념관으로 다녀왔습니다.

나들이 전에 제가 팀원들이 휠체어를 타고서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사점답사를 다녀옵니다. 지하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동선을 다 미리 봐줘야 실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모임이 제일 좋은건 모임을 만들고 나들이를 다녀오면서 우리 팀원들이 많이 변한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걸던 사람들한테 내가 ‘야 저분한테 가서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 그래요. 그러면 쭈뼛 쭈뼛 하면서 스쿠터 타고 가서 부락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자기 말을 들어주고 찍어준다 하거든요.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웃어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더 시켰어요. 사람들이 나이도 많고 장애도 있어서 다들 아픈 사람들이라 얼굴이 밝지가 못하니까 일부러 웃으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기뻐하는 얼굴을 보면 나도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 팀원들은 같이 모여서 나들이 갔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휠체어 탄 장애인들과 같이 사고 없이 지하철 타고 움직이는 법을 다 압니다. 그래서 팀원들이 너무 아쉬워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올해 가려고 했던 곳 중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간 곳들이 많고 이제는 휠체어를 타고서도 안전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많이 아니 한 번 더 신청해서 내년에도 곳곳으로 다니는 모임이면 좋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팀원들하고 다음에 어딜 갈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하루 비슷한 날들이어서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우리 팀이 같이 갈 다음 나들이가 기다려져요.

이렇게 팀원들과 새로운 장소에도 가보고, 새로운 활동도 해보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내일이 기대되는 2021년을 보냈습니다.



뜨 . 사 . 모

(뜨개질을 사랑하는 모임)

모임소개

뜨개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젊은 날 이후로 오랫동안 뜨지 않았던 회원도,
수세미만 뜨던 회원도,
장애로 뜨개질을 못한다고 생각했던 회원도
뜨개질을 좋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뜨개질을 서로 알려주고 재료도 함께 사다보니
어느새 뜨개질만이 아닌 함께하는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뜨개질을 하는 시간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모임 구성원

총 5명
장애인 4명 비장애인 1명

포근한 뜨개실 같은 모임에 함께하며

뜨사모 성갑순

뜨사모에 처음부터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중간부터 참여했지만 저는 이 모임이 포근한 뜨개실과 같은 따뜻한 모임이라고 느낀답니다.

어떤 선생님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침을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용기종기 모여 도란도란 세상사 이야기도 하면서 유튜브를 모며 뜨개질을 뜨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시는 분이 가르쳐 주시기도, 직접 떠주기도 하면서 끝나면 몇 몇분들과 함께 맛난 오찬을 즐기기도 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 본인이든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든 바라보는 시선이 불공평하거나 곱게 바라보는 분위기는 아니죠.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도 많이 느끼고 살아가지만, 그저 내 업보고 팔자려니 하면서 포기한 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뜨사모에서는 서로의 일상을 풀어 놓으며 내면의 고통이나 다른 이들에게 내색하기 불편했던 것들도 같이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뜨개질을 하며 이야기하니 서로의 애로사항을 풀어놓은 것에 따뜻한 조언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생으로 교육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뜨사모 같이 정신적인 부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모임도 무척 중요하다 싶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디서 모일지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고 싶다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뜨사모 덕분입니다.

뜨사모 고순이

장애를 가지게 된 지는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때 이후로 교회도, 자주 가던 뜨개방도 일절 안 나갔습니다. ‘나도 저렇게 걸을 수 있었는데, 나도 뜨개질을 뜰 수 있었는데’ 하는 마음이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복지관에서 운동만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뜨개질 모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지관에서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모자를 뜰 수 있을지 몰랐었습니다. 장애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 손은 뜨개질을 오래하면 되게 아픕니다. 그래서 못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해에만 모자를 몇 개를 뜰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도 뜨개질을 하고 있으면 남편이 지나가며 ‘거 할 수 있구만 그래. 잘 뜨네.’ 그리고 지나가고, 손자도 ‘할머니 잘 뜨네! 엄청 좋아졌다!’ 그러면서 좋아라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니깐 힘들고 아프지만 ‘아 내가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들면서 자꾸 뜨개질을 하게 됩니다.

또 뜨사모 회원들이랑 마음이 잘 맞아서 자꾸 뜨개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뜨개질을 하고 점심을 먹는데 하루는 내가 사고 하루는 저이가 삽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는 뜨개질 말고도 다들 살림을



하니까 요리 얘기도 하고, 뭐 근처에 맛있는 식당 얘기도 하고, 가족들 이야기도 해요.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 하는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뜨사모를 하길 잘했다 생각합니다.

나를 밖으로 끌어내주고, 나오니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내가 뜨개질도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뜨사모 덕분에 즐거운 2021년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낚시 모임

모임소개

매주 일요일이면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없어도
수확의 기쁨은 같습니다.

저 멀리 바다의 수평선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밤 바다에 울렁이는 달 그림자를 바라보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나눕니다.
매주 만나던 친구들이지만 새로이 이해하는 기회입니다.
스몰스파크 덕분에 물고기가 아닌 친구를 낚아왔습니다.

모임 구성원

총 4명
장애인 4명 비장애인 2명

꿈의 신호탄

꿈꾸는 낚시 모임 이광수

작년부터 작지만 큰 걸음이라는 사업을 알고 참여하고 싶어 2021년 신청기간 및 준비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했다. 담당자에게 몇 번이나 선정을 간곡히 부탁해서 2021년도 작지만 큰 걸음에 선정 되었다. 이얏호!!

작은 돈이지만 5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나를 세상 밖으로 좀 더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지원금 사용 방법을 3명의 팀원들과 고민 하였다. 영수증 첨부 방법이 좀 까다롭기는 하지만 뭐 쓸 수 있는 만큼 쓰면 되니깐.

사업에 선정된 후 점점 우리 ‘꿈꾸는 낚시 모임’의 첫 번째 출조일이 다가올수록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낚시의 성과에 대한 기대보다 더 크게 일어났다.

긴 차량탑승으로 인한 화장실 문제는 잘 해결 할 수 있을지, 모래사장에서의 걸음은 불편하지 않을지, 모래사장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큰 실수 없이 화장실을 갈수 있을지, 또 긴 시간 밤늦은 시간의 추위와 졸음은 잘 참을 수 있을지 등등의 걱정. 그러나 첫 출조 후 이 모든 걱정은 낚시 성과의 즐거움과 함께 사라져 버렸다.





팀원들은 다치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지인들로, 이번 꿈꾸는 낚시 모임을 통해 멀리 동행함으로써 나의 불편함을 인지하고 배려해주었다. 아파트 우리 집 현관까지 짐을 가지러 올라와 주었고, 모래사장 화장실도 미리 탐색하여 제일 빨리 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고, 차량운행 내내 간이 화장실, 휴게소등을 좀 더 자주 방문하는 수고로움은 마다하지 않았다. 모든 낚시 재료 및 식음료 준비 또한 철저하게 해주어 낚시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준 나의 사랑스러운 팀원들이며 동반자들이 되었다.

낚시 조항 또한 그전에 가끔 갔던 낚시 조항에 비해 최고는 아니지만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큼이었다고 말해주니 이 기쁨 또한 어디에 비길 바가 없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얼려진 커피와 삼겹살, 맛난 김치와 라면 그리고 직접 잡아 그 자리에서 회 쳐 먹고, 소금구이까지 해서 먹은 봉장어의 꿀맛은 나의 불편함을 잊게 해준 최고의 기억이었다.



2번째 출조일을 결정 했을 때 부터 첫 출조때의 걱정은 거의 사라지고 ‘이번엔 얼마나 많은 즐거움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기대가 나를 흥분시켰다. 2번째 출조 때에 먹은 만찬들도 같은 고기와 삼겹살과 커피지만 동행한 지인들과 먹으니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올해 총 3번을 다녀왔는데, 출조를 갈수록 낚시 조황이 줄어들니 낚시의 즐거움은 조황과 함께 줄어들고 먹는 즐거움만 남아 참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10월 마지막 출조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작지만 큰 걸음 사업에 참여했던 시간을 되돌아보니, 말그대로 객지로의 나가는 두려움을 없애 주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업을 통해 너무나 활기차고 건강한 이정혜복지사님을 알게 된 것에 감사하며, 또한 같이 동행하여 함께 출조의 즐거움을 나눈 내 친구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는 것으로 여행 수기를 마무리 하려고 한다.



이런 즐거움과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해준 작지만 큰 걸음에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

문학마을

모임소개

캘리그래피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좋은 글귀를 예쁘게 써 내려가다보면
어느새 내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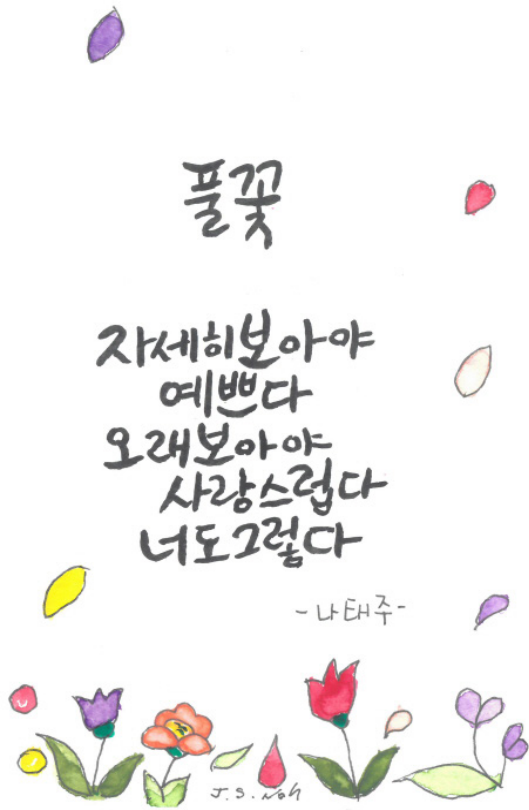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직접 만나는 것은 줄었지만
대신 매일 같이 온라인에 내가 쓴 작품을 올립니다.
서로서로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알기에,
작품만큼이나 따뜻한 댓글을 답니다.

마음을 나눈 사람끼리 모이니
오래된 동창과 함께하는 것 같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이제는 캘리그래피가, 문학마을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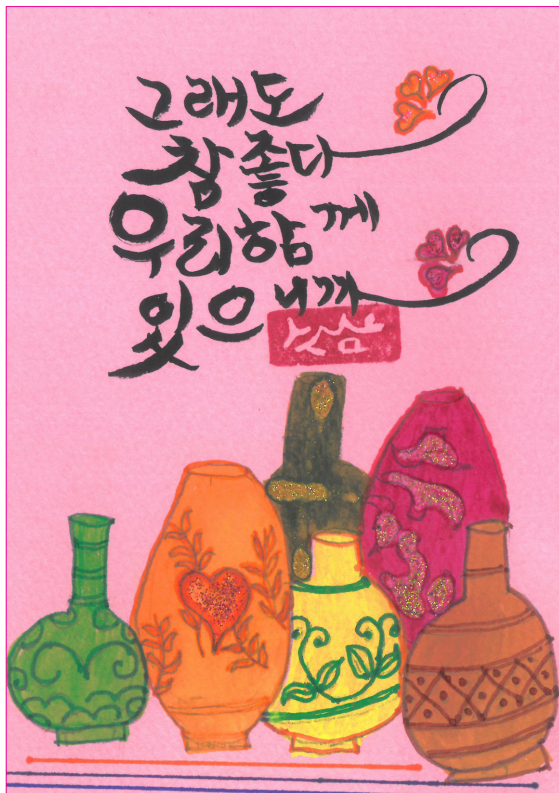
모임 구성원

총 5명
장애인 3명 비장애인 2명



노정숙

문학마을과 함께한 날들은 혼자 웅크린 내 마음을 두드린 다정함이 넘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박수남

코로나19로 많이 힘들던 시기에 지치고 힘들 때, 예전부터 꿈꾸던 좋은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신이 났어요.

울 문학마을은 작은 모임이었지만 회장님께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셨고, 또 정숙 총무님을 비롯해서 울 문학마을 언냐들이 서로 격려하며 함께 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값진 시간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큰 걸음이 되어 버린 울 문학마을~
아자아자 파이팅~!

을 겪으 오고
 갈 겪은 갑니다.
 자연 스럽게...



유진

이유진

문학마을과 함께한 시간은 우리 모두 캘리그래피 작품도 만들고 서로의 작품도 감상하며 서로 사랑하고 힐링되는 멋진 시간이었습니다!



이정임

코로나로 힘들고 더구나 저는 몸이 더 안좋아 고생이었어요. 그렇지만 작지만 큰 걸음 사업으로 만난 문학마을 회원 언니들의 격려와 열정 칭찬의 힘으로, 함께 한 시간이 저에게 있어 너무나 큰 감동과 힘이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독서와 캘리그림 등을 같이 배워 행복하였습니다.



이해정

열정의 화신 이유진 회장님, 성실의 아이콘 박수남 밴드지기님, 꼼꼼함의 대명사 노정숙 총무님, 멋쟁이 사진작가 이정임님, 배려의 최고봉 이정혜 복지사님과 행복하게 어깨 걸고 함께 걷던 작지만 큰 걸음이었습니다.

스몰스파크 참여자 이야기

스몰스파크란 000 이다!

용화다. (신○철)

나에게는 도전. 세상에 대한 거부감을 깨기 위한 도전이다. (이○수)

작지만 크게 걸어라.
(노○숙)

행복이다. 뭐 내가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주위가 변하면 행복이지 않겠어요.
(이○진)

저는 기쁨. 이렇게 작지만 큰 걸음은 기쁨도 주고 저희들의 생활 활력도 주니까요.
(최○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김○옥)

어울림. 나 혼자 있는 것 보다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신감도 얻고요. (이○희)

즐겁고 행복한 것. 참여하면서 즐겁고 행복했거든요. (고○이)

좋다! 내년에도 활성화가 되어서 참여하고 싶다. (임○엽)

겨자씨이다. 작은 씨앗이 자라서 꽃이 피고 큰 겨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큰 변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씨앗 같은 것.
(임○희)

어깨 결고 가는 길. 이게 어깨 동무를 하고 같이 간다는 순수 한글말인데, 같이 간다는 뜻이 거든요. 스몰스파크 하면서 회원님들하고 모든걸 함께해서 생각이 났어요. (이○정)

즐거움이다.
(정○빈)

힐링 프로그램. 내가 좋아하는 것 해서 좋았고, 선생님들 만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도 좋았고, 내가 만든걸 나눠줄 때 사람들이 받아가지고는 막 좋아해 주는 모습 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장○정)

환한 웃음이다. 우리 모임은 다들 정말 즐겁게 웃으며 활동했어요. (유○동)

마중물이다. 마중물이 물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작은 물이잖아요. 저희 같은 모임들이 그런 물이 되어서 물길을 팡 터지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 모임으로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는거죠.
(임○애)

힐링이다. 진짜 저는 힐링 받았어요. (박○남)

즐거운 반성의 기회였다. 이 모임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한 걸음 내려놓으니까 내가 왜 그렇게 오해하며 살았나 하는 반성하는 기회가 되어서 좋더라고요. (오○숙)

사회복지사 이야기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생각이 납니다. ‘작지만 큰 걸음’이라는 사업명을 정하고 말 그대로 정말 발로 걷고 뛰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우여곡절에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첫 해에 가장 생각 나는 기억은 모니터링을 나갔을 때 봤던 참여자 분들의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모두 함께 환하게 웃던 그 모습에 ‘사람들이 장애를 뛰어넘어 더욱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차인 올해는 담당자로서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인걸 알겠는데, 통합 모임의 선생님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참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서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 1년 동안 참여자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즐거워 환하게 웃는 모습 이외에도 스스로를 부듯해 하는 모습,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모습들을 보며 스몰스파크가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저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이 성과보고서에 담아보았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사업의 의미와 성과를 모두 담아낼 수 없어 아쉽지만, 조금이나마 녹여내 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저희의 걸음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의 발걸음을 함께 해주신다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성과보고서로, 스몰스파크에 중간 썸표를 찍고자 합니다. 3년간 쉬지 않고 달려온 스몰스파크의 담당자로서, 썸표의 자리에서 되돌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 한 분 한분이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작지만 큰 걸음으로 저에게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것 같습니다.

2021년은 마지막 달이 되었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듯이, 스몰스파크도 썸표를 찍었지만, 이후로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한 번의 썸표 뒤에 더 많은 분과 함께하고 더 크게 지역통합으로 걸어갈 수 있는 스몰스파크가 되길 바랍니다.

지역연계팀 사회복지사 이정혜

참고문헌

- 박승희(2010), 장애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전환 지원 방안, 이화여자대학교
- 이익섭(1998), 장애인 통합지수의 개발,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서울시복지재단(2020), 응심이 운영매뉴얼 ver.3.0

부록

1.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성과측정 설문지(장애인)
 2. 스몰스파크 성과측정 설문지(장애인)
 3.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 스몰스파크 성과측정 설문지(비장애인)
 4.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5. 스몰스파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성과측정 설문지 (장애인)

일자	년 월 일	이름	
----	-------	----	--

1. 자기 효능감

아래 문항은 귀하의 심리적 안녕감 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정도에 V 표시해주세요.

문항	거의 그렇지 않음 ↔ 매우 포함			
	1	2	3	4
1.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곤 한다.				
2.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3.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한다.				
4. 나는 내 생활에 만족한다.				
5.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6. 나는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다.				

2. 지역사회 내 관계 태도

이런 문항은 사회 관계 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정도에 V 표시해주세요.

문항	거의 그렇지 않음 ↔ 매우 포함			
	1	2	3	4
7. 사람들은 나에게 친절하다.				
8.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9. 나는 새로운 사람과 쉽게 친해질 수 있다.				
10. 나는 자주 외출한다.				
11. 나는 사람들의 시선에도 상관없이 외출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				

3. 사회생활 (사회적 자본)

다음은 사회 활동, 사회적 자원 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 선택항목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에 V 표시해주세요.

문항	거의 그렇지 않음 ↔ 매우 포함			
	1	2	3	4
12. 나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13. 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14.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주민센터, 복지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다.				
15. 집근처 내가 원하는 곳(상점, 음식점, 관공서 등) 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16. 나는 동네주민과 함께 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17. 나는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17. 나는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4. 위의 질문에 없는 내용으로 사업 참여를 통해 귀하의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통합척도

1. 소비성

아래의 일상적 소비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안함	거의 안함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평소 카페나 식당에 가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쇼핑센터나 동네 상가에 가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일주일에 얼마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거나 외식을 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동네 상가에 가서 물건을 사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접근성

아래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것이 얼마나 편리하십니까?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문항		매우 어렵다	어려 운편	보통	쉬운 편	매우 쉽다
1	백화점 / 시장 / 슈퍼마켓	①	②	③	④	⑤
2	영화관 / 공원 / 놀이시설	①	②	③	④	⑤
3	카페 / 식당 / 술집	①	②	③	④	⑤
4	미용실	①	②	③	④	⑤
5	은행 / 동 주민센터 / 우체국 / 복지관	①	②	③	④	⑤
6	병원 / 보건소 / 약국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기관 (교회, 성당, 사찰 등)	①	②	③	④	⑤
8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①	②	③	④	⑤
9	인터넷 이용	①	②	③	④	⑤

3. 참여성

아래의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십니까?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안함	거의 안함	보통	자주	매우 자주
1	친척방문 및 모임참석	①	②	③	④	⑤
2	주변의 절친한 사람 (친구, 이웃, 직장동료) 만나기	①	②	③	④	⑤
3	종교활동 (교회, 사찰, 성당 등)	①	②	③	④	⑤
4	여가활동 (취미교실, 단체운동, 레저활동 등)	①	②	③	④	⑤
5	영화, 연극관람	①	②	③	④	⑤
6	사회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⑤
7	쇼핑하기	①	②	③	④	⑤
8	외식하기	①	②	③	④	⑤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성과측정 설문지 (비장애인)

일자	년	월	일	이름
----	---	---	---	----

1. 지역사회 내 장애인식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 등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다음 선택항목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것에 V 표시해주세요.

문항	거의 그렇지 않음 ← 매우 고려함			
	1	2	3	4
1. 장애인은 외부와 소통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2. 장애인은 대체로 비장애인보다 다가가기 어렵다.				
3. 장애인과는 주의해서 말해야 한다.				
4. 대부분의 장애인은 걱정거리가 많다.				
5. 장애인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늘 도움을 주어야 한다.				
6. 장애인은 외부와 단절된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다.				
7.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8.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일반적인 직업활동을 할 수 있다.				
9. 장애인의 능력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10.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자기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				

2. 장애인 인권 및 포용

다음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의견 등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문항	거의 그렇지 않음 ← 매우 고려함			
	1	2	3	4
11. 장애인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2. 장애인도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자격이 있다.				
13. 장애인들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14. 모든 장애인은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15. 모든 장애인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				
16.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상점, 식당,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17. 장애인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18. 장애인이 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19. 장애인이 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20.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자기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다.				

3. 위의 질문에 없는 내용으로 사업 참여를 통해 귀하의 삶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구분	질문내용						
시작질문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입질문	2.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3.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사업에 처음 참여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4. 처음으로 시민옹호활동가/짝꿍(장애인)을 만났을 때 어땠나요?						
주요질문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82 568 392 1336">공통질문</td> <td data-bbox="392 568 1186 1336"> 5. (활동경험)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그 경험이 어땠나요? 6. (관계경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7. (관계의 지속성) 시민옹호활동가와 장애인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 (지역사회통합 경험) 사업에 참여하면서 함께 새롭게 한 경험/만난 사람/가본 곳은 무엇인가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9. 함께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10.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11. 사업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적은 언제인가요? 이유는요? 12.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13. 사업 참여 후 일상생활, 삶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4. 사업에 참여하면서 불편했던/곤란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15. 사업 참여를 통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16. 사업에 참여하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기관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td> </tr> <tr> <td data-bbox="282 1336 392 1433">장애인</td> <td data-bbox="392 1336 1186 1433">17. (발달장애인 경우) 시민옹호활동가에 대한 느낌, 시민옹호활동가와 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td> </tr> <tr> <td data-bbox="282 1433 392 1609">시민 옹호 활동가</td> <td data-bbox="392 1433 1186 1609"> 18. 시민옹호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19. 시민옹호활동이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20. 시민옹호활동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1. 시민옹호활동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td> </tr> </table>	공통질문	5. (활동경험)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그 경험이 어땠나요? 6. (관계경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7. (관계의 지속성) 시민옹호활동가와 장애인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 (지역사회통합 경험) 사업에 참여하면서 함께 새롭게 한 경험/만난 사람/가본 곳은 무엇인가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9. 함께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10.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11. 사업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적은 언제인가요? 이유는요? 12.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13. 사업 참여 후 일상생활, 삶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4. 사업에 참여하면서 불편했던/곤란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15. 사업 참여를 통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16. 사업에 참여하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기관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장애인	17. (발달장애인 경우) 시민옹호활동가에 대한 느낌, 시민옹호활동가와 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시민 옹호 활동가	18. 시민옹호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19. 시민옹호활동이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20. 시민옹호활동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1. 시민옹호활동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통질문	5. (활동경험)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그 경험이 어땠나요? 6. (관계경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7. (관계의 지속성) 시민옹호활동가와 장애인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일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8. (지역사회통합 경험) 사업에 참여하면서 함께 새롭게 한 경험/만난 사람/가본 곳은 무엇인가요?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9. 함께 지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10.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11. 사업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한 적은 언제인가요? 이유는요? 12. 사업에 참여하면서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인가요? 13. 사업 참여 후 일상생활, 삶에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4. 사업에 참여하면서 불편했던/곤란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그때 어떻게 했나요? 15. 사업 참여를 통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16. 사업에 참여하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기관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장애인	17. (발달장애인 경우) 시민옹호활동가에 대한 느낌, 시민옹호활동가와 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시민 옹호 활동가	18. 시민옹호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19. 시민옹호활동이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20. 시민옹호활동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21. 시민옹호활동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무리질문	22. 나에게 시민옹호활동가는 ○○○이다.						

스몰스파크 포커스 그룹 인터뷰 질문지

구분	질문내용
시작질문	1. 스몰스파크를 어떻게 신청하시게 되었나요? 2. 스몰스파크를 처음 신청하셨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셨나요?
도입질문	3. **모임은 주로 어떻게 활동했나요? (주기, 활동 내용 등) 그 활동이 어땠나요?
주요질문	[활동경험] 4.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 경험은 무엇인가요? 5. **모임 활동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6. (기조직된 모임) 스몰스파크에 참여하시면서 기존의 모임 활동과 달라졌던 점이 있나요? 7. 스몰스파크에 참여하시면서 새롭게 해본 경험, 알게 된 사람이 있나요? 8. 스몰스파크 참여 이후 일상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 있나요? 9. 처음 스몰스파크 참여하실 때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졌나요?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면 이유가 뭔가요?
	[사업 참여 이후] 10. **모임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10-1. (모임을 지속할 경우) 스몰스파크 지원이 끝난 이후 어떻게 활동을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10-2. (모임을 지속할 경우) 활동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0-3. (모임을 중단할 경우) 모임을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4. (모임을 중단할 경우) 어떤 지원이 있었다면 모임이 지속될까요? 10-5. (모임을 중단할 경우, 신규 모임) 모임 활동은 중단되어도 연락하고 지낼 회원이 있으신가요?
	[사업의 의미] 11. 스몰스파크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활동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3.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활동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장애인 14. **모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 활동하셨나요? 그 경험은 어땠나요?
	비장애인 15. **모임에서는 장애당사자와 어떻게 함께 활동을 했나요? 16. 스몰스파크에 참여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있었나요? 그 변화는 왜 생겼을까요?
마무리질문	17. 나에게 스몰스파크는 OOO이다.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2021-03

2021년 장애인 지역통합사업 성과보고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관악구장애인종합복지관
발행인	황성혜
편집인	온지혜, 이정혜
주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14(봉천동 1660-4)
전화	02-877-0750
팩스	02-877-0751
홈페이지	http://www.sgwga.or.kr
디자인/인쇄	광화문북스
ISBN	979-11-975040-2-0

